

Le Petit Prince - The Little Prince © Antoine de Saint-Exupéry Estate. Licensed by LPP612.

MONT  
BLANC



*Le Petit Prince*

**Creating new heights.**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르 뵈띠 프린스 에디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 Style

조선일보

MAY 2018  
vol.173



**Ermenegildo Zegna**

DEFINING MOMENTS

JAVIER BARDEM and DEV PATEL, MALIBU HILLS, 8pm  
WATCH THE SERIES ON ZEGNA.COM

© TIFFANY & CO. 2018



JP x JC

TIFFANY & Co.



Believe In Love

Tiffany.kr



REFLECTIONS/  
SHORT FILMS BY F.B.  
#5. AURORA  
WITH V.C.  
BOTTEGAVENETA.COM



**BOTTEGA VENETA**



BY APPOINTMENT TO  
HER MAJESTY THE QUEEN ELIZABETH II  
WEATHERPROOFERS  
BURBERRY LIMITED LONDON



BY APPOINTMENT TO  
HIS ROYAL HIGHNESS THE PRINCE OF WALES  
OUTFITTERS  
BURBERRY LIMITED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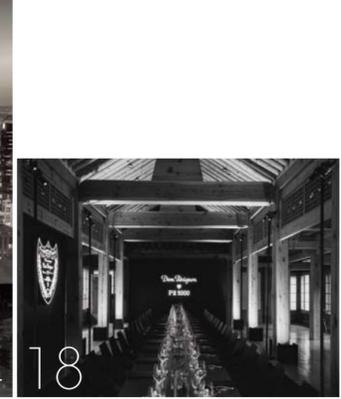
**BURBERRY**



Breguet  
Depuis 1775



Reine de Naples Collection  
**IN EVERY WOMAN IS A QUEEN**



44 18

34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2018 봄여름 시즌, 에르메스도제나 브랜드 아티스틱 디렉터 알렉산드로 사르토리(Alessandro Sartori)의 작업이다. 지난 시즌에 이어 럭셔리 레저 웨어를 주요 테마로, 에르메스, 라프시스트라, 그리고 옷 안에는 방수물 모두 아우르며 럭셔리한 소재와 풍부한 디테일로 스토리를 전달한다. 문의 02-2240-6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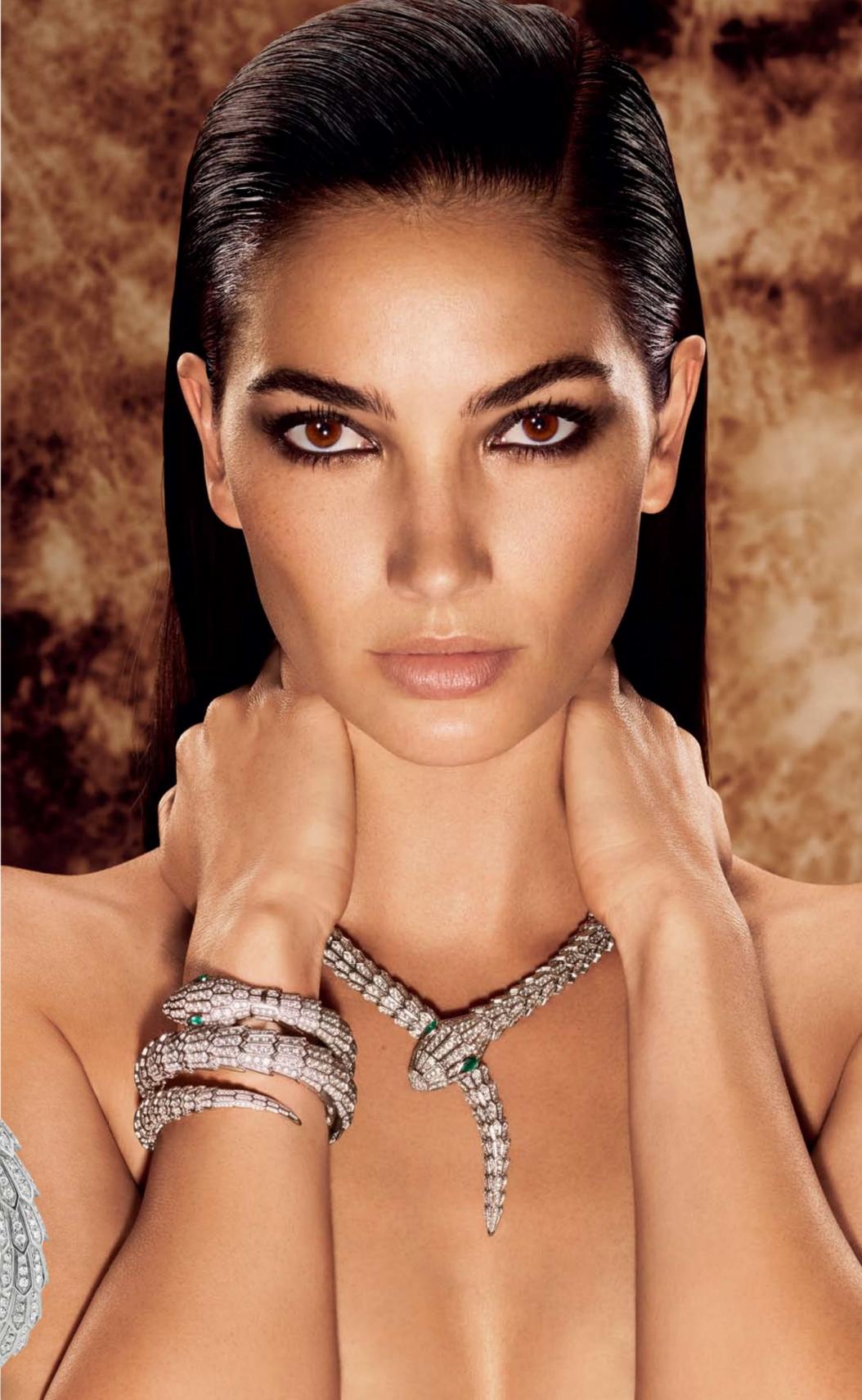


톱 1백17만원, 드레스 2백85만원, 구두 1백11만원 모두 판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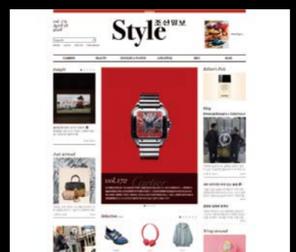
- 18 **A SUBLIME HARMONY** 인간은 음식을 복잡하게 변형할 줄 알고, 그것을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했다. 그러한 재창조 작업의 정성을 보여준 미식의 향연이 얼마 전 빛을 볼 서울 한국구락부관에서 열렸다. 빈티지 샵페인 명가인 돔 페리뇽(Dom Pérignon)과 프랑스 출신의 국보급 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의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이래 2차 절정기를 맞이하면서 탄생한 '돔 페리뇽 P2 2000'에서 영감을 받은 창조적 협업이 낳은 매혹적인 샵페인 페어링 만한 현장을 소개한다.
- 20 **THE WATCH WOMAN** 시계 선물은 사랑하는 그녀와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로맨틱한 선택이다. 그녀를 닮은 워치 셀렉션.
- 22 **THE WATCH MAN** 시계 애호가 남성에게 시계는 작은 우주나 다름없다. 기술력, 브랜드 DNA까지 모두 담은 워치는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 24 **THE BEAUTY** 5월,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좋은,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뷰티 셀렉션.
- 26 **THE FASHION WOMAN** 실용적인 스타일링부터 포인트가 되어 줄 특별한 액세서리까지, 여성을 위한 기프트 셀렉션.
- 28 **THE FASHION MAN** 클래식한 디자인과 패셔너블 터치를 더한, 남성을 위한 기프트 가이드를 제안한다.
- 30 **THE LIVING** 상대를 위해 고상한 훈장이 엿보이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인테리어 오브제와 실용적인 라빙 아이템을 소개한다.
- 32 **THE JEWEL** 반짝이는 주얼리만큼 여자의 마음을 살리게 하는 선물도 있을까. 럭셔리 하우스의 시그니처 디테일을 담은 주얼리라면 보는 순간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
- 33 **HAPPY MOMENTS**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스와로브스키의 기프트 아이템을 제안한다. 봄을 상징하는 꽃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라티샤(Latisha) 주얼리 컬렉션과 함께 크리스탈 광채를 뽐내는 '스텔라(Stella)' 워치가 그것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반짝임을 안겨줄 것이다.
- 34 **HIGH NOON** 화려한 프린트와 유니크한 디테일로 눈길을 사로잡는 조여름의 스페셜 룩.
- 41 **EDITOR'S PICK** 감사의 말과 함께 전달하면 좋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추천하는 뷰티 기프트 아이템.
- 42 **STYLISH COMFORT**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운 신발도 신었을 때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 여기 발이 편안할 때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면 브랜드 철학을 이야기하는 인체 공학적 패션 슈즈 브랜드 핏플럼을 소개한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5월, 스타일을 살려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까지 지켜주는 핏플럼을 만나 보는 건 어떨까.
- 44 **MANHATTAN MIDNIGHT** 뉴욕자에게 최고의 기프트로 여겨질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맨해튼의 야경을 심플하고 럭셔리하게 풀어낸 새로운 맨해튼 미드나잇 블랙 컬러. 브루클린에서 바라본 뉴욕의 화려한 불빛과 깊은 밤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련된 블랙 컬러의 냅장고, 바로 LG DIOS 얼음장수기 냅장고 맨해튼 미드나잇이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준다.



# Style 조선일보

Issue.173 May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경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 stylechosun.com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BVLGARI ROMA

SERPENTI  
BVLGARI.COM



**Jewel**  
**LEAN&LONG**

가늘고 긴 실루엣으로 선보이는 롱 네크리스의 매력.

(왼쪽부터) 오피니오 완성판, 행운을 의미하는 이클라드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1천만원대 **까르띠에**,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프롤 컬렉션 롱 네크리스 9백80만원 **반클리프 아펠**, 뒷면에 마다모브를 세팅한 플라워 컬렉션 네크리스 3백만원대 **오메가**, 선인장 모티브에 블루 컬러 라피스 라줄라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각투스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4천만원대 **까르띠에**, 에디터 **베이지**

**Hot spot**  
**FUN WITH HERMÉSISTIBLE**

매종 에르메스 도산파크가 또 한번 특별한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바로 에르메스의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를 총망라 한 온라인 인터랙티브 공간인 '에르메시스터블(Hermésistible)'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 에르메시스터블은 패션 액세서리 마니아를 위한 단어를 워드 있게 조합한 신조어가 가득한 감정 사전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아이템을 믹스해 연관된 이미지와 영상을 선보여왔다. 이번에도 물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신조어가 가득하다! '사랑해'란 말에 집착해본 적이 있는가? 'Lovermania', 택시를 잡는 기술을 터득해본 적이 있는가? 'Taxilosophy', 부끄럼없이 음식을 탐해본 적이 있는가? 'Frenchitude', 신나게 웃어본 적이 있는가? 'Optimitude' ... 이처럼 놀이 공간으로 변신한 매종 에르메스 도산파크를 찾으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주는 에르메스 패션 액세서리와 함께 다양한 기분을 컬러로 표현해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에나멜, 가죽, 그리고 우드 등의 소재가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이어링으로 탄생하는 유쾌하고 포토제닉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노매드(Nomade), 미니 독(Mini dog), 샤르니에(Charniere), 그리고 에나멜(Enamel) 액세서리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내 감정을 확인해보는 이모션 휠, 다채로운 메도르 인피니(Medor Infini) 액세서리와 함께 라이브 쿠키 존, 핸드 포토 부스 등 다양한 놀이 거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자, 신나게 웃을 준비가 되었다면 'Optimitude!'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간 매종 에르메스 도산파크에서 소개할 에르메시스터블의 놀이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문의 02-3015-3212 에디터 **이지연**



**Beauty**  
**SUNKISSED LIPS**

화사한 볼 햇살만큼이나 톡톡 튀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담은 립 제품은 볼여름 시즌 필수 아이템! 잉크로 입술을 물들듯 쉽게 자취가 지는 강력한 컬러 지속력과 함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입술을 메이크업 하지 않는 촉촉한 보습력까지 겸비해 립 메이크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스터 304호**는 '마드렛'이라는 제품명에서 영감을 받았던, 기존 립스틱보다 4배 더 얇게 입술에 자취를 남기며 오랫동안 선명한 컬러를 유지한다. 워터-인-오일 에디션 포뮬러로 입술에 바비드한 컬러를 남기고 매트하게 마무리되지만, 각질을 부각하지 않고 매끄럽게 발리는 것이 장점(3.9ml 4만5천원대). **나스 파우어메트 립 피그먼트 기브 잇 업**은 매트한 텍스처는 건조하다는 공식을 깬 정도로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눈에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되는 강력한 컬러가 특징인 리퀴드 립 아이템.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으면서 선명한 컬러는 그대로 유지한다(5.5ml 3만7천원). **향물 입술워 에나멜 리커 #515**는 '수자' 15리는 컬러링이 생길 정도로 수지가 발라 색채(선)을 일으킨 라커로, 틴트와 글로스의 장점을 모아 에나멜처럼 매끈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틴트의 강력한 지속력과 선명한 발색력, 그리고 글로스의 매끈한 유리질 광택이 돋보이고, 뒷바늘수록 갈라와 광택이 배기되어 과감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8ml 4만2천원대). **샤넬 루주 앰버로 잉크**는 벨벳처럼 매트하게 마무리되면서도 호호바 오일, 비타민 E 등 스킨케어 성분을 담아 부드럽게 녹여주는 촉촉한 텍스처가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선명한 컬러가 입술에 가볍게 스며들고 8시간 이상 지속된다(6ml 4만5천원). **백 비스킷 바니쉬 크림 립 스테인 바니쉬 리드**는 출시되자마자 품절 사태를 일으킨 바니쉬 컬러 스테인인 새로운 버전으로, 생생한 컬러 지속력, 코팅된 듯 반짝이는 에나멜 파우더가 매력적인 제품. 강력한 바니쉬 틴트 효과로 12시간 동안 컬러가 지속되고, 고풍으로 코팅된 듯한 반짝임은 무려 4시간이나 지속된다(5.5ml 3만4천원대). **디올 에리트 리커 플립프 #758**은 바니쉬 즉시 인크처럼 선명한 컬러가 입술에 스며들어 대담한 립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리커 플립프의 반짝임이 입술을 매끄럽고 도통해 보이도록 연출하고, 울트라-하이드레 이팅 효과로 립 잉크에서 가래할 수 없었던 촉촉함을 선사한다(5.5ml 4만4천원대). 에디터 **권유진**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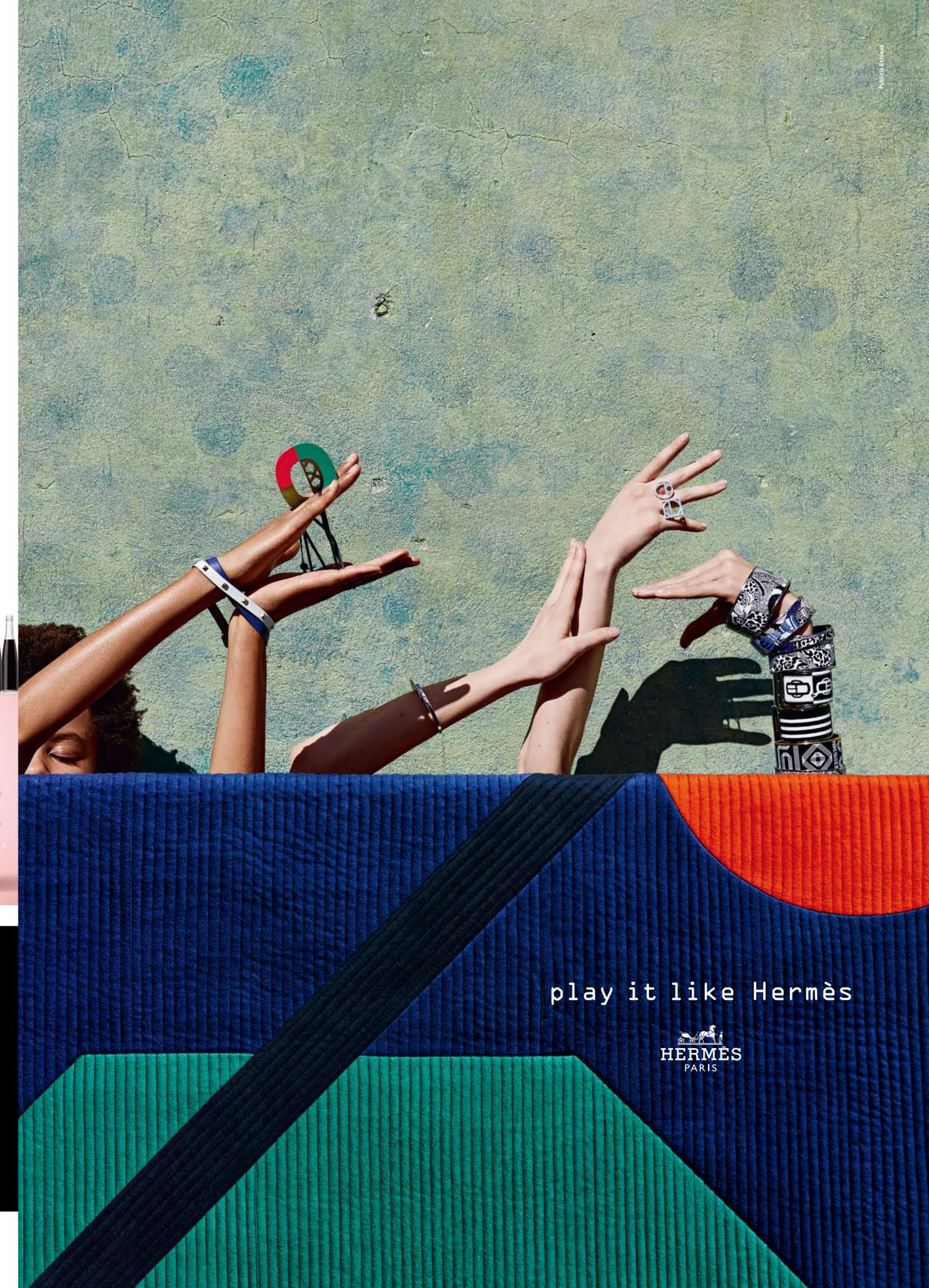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스들.

**Focus**  
**혁신의 역사를 쓴 보브 클리코 로제, 탄생 200주년을 맞다**

상큼함이 감도는 짙은 노란색이 상징인 샴페인 브랜드 보브 클리코(Veuve Clicquot). 최초로 기록된 빈티지 샴페인을 내놓은 여성 기업가 마담 클리코의 이름을 딴 이 브랜드에 2018년은 아주 특별한 해다. 마담 클리코가 창조한 '블렌딩 로제 샴페인'이 세상에 나온 지 200주년의 해여서다. 1818년 마담 클리코는 샴파뉴 지역 부지(Bouzy)에서 나오는 피노 누아 레드 와인을 베이스 와인과 함께 블렌딩해 특성이 뚜렷하고 강렬한 로제 샴페인을 만들어냈다. 당시만 해도 옐다베리라고 사용해 색을 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그녀는 이 같은 규칙을 과감히 깨고 피노 누아를 사용해 맛과 색, 이로부터의 샴파뉴를 모두 갖춘 블렌딩 로제 샴페인을 샴파뉴 지역 최초로 탄생시켰다. 보브 클리코 로제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클리코 팬들이 빈질 만한 화신도 있다. 기존의 '보브 클리코 로제 NY' 외에 시트러스 향과 신선한 붉은 과일을 특징으로 하는 '보브 클리코 빈티지 로제 2008(750ml 14만원대)', 그리고 최상급인 그랑 크뤼 포도밭 여덟 곳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만드는 '프레스티지 쿠페 샴페인'과 그랑 당 로제 2008(750ml 57만원대)을 한 곳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것. 또 패턴트 통처럼 생긴 강철한 보관함이자 로제 한 병을 담을 수 있는 아이스 버킷으로도 활용 가능한 '보브 클리코 로제 200주년 기념 케이크(로제 NV 750ml, 케이크 모양 틴 케이스 구성, 11만원대)도 주요 백화점 와인 숍,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프렌치 레스토랑 제 로컴플렉스의 이층후 셰프는 보브 클리코와 협업해 이 세 가지 로제 샴페인을 위한 독창적인 페어링 요리를 선보여 젊은 감각의 미슐랭 셰프답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에디터 **고성연**

**Living**  
**실용성과 세련미를 겸비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리치우드**

헤이, 에디그램, 하이브로우 등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들어서 있는 서울 용산구 경리단길(화남로 42길 10)에 '리빙'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들를 만한 곳이 또 하나 생겼다. 현대적인 감성의 유럽 가구를 비롯해 일본 빈티지 가구, 국내 작가들과의 협업 작품 등을 소개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리치우드(Richwood). 공간·인테리어 컨설팅 기업 (주)부유리벤(BAU LEBEN)에서 운영하는 이 매장에서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담긴 다양한 가구와 소품을 판매하며, 취향에 따른 공간 디자인도 제안받을 수 있다. 리치우드가 독점적으로 소개하는 핀란드 쿠텔퍼리 가구 브랜드 아데아(Adea), 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로 20여 명의 디자이너가 각기 다른 스타일의 감성색을 디자인하는 타치니(TACCHINI) 등이 대표적이다. 또 덴마크와 일본의 빈티지 가구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양정모, 이예지, 이해주 작가 등 우리나라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참신한 가구와 소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리치우드 연속진 대표는 '매 시즌 분명한 기준과 콘셉트를 갖고 리치우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리빙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rich-wood.co.kr 문의 02-798-0341 에디터 **고성연**



play it like Hermès

**HERMÈS**  
PARIS



레드 플라워 이클릭에 장식 드레스 53만원, 벨트 가락 미장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캐리감이 탐스러운 빨간 프래임의 선글라스 20만원대 엘프리드 아르마니 by 록스타카 코리아.

편안한 리본 디자인이 돋보이는 레드 펌프시 1백만원대 에르메스.

캐피라 블루 갈색가 부드러운 아우라진, 100% 에센셜 코로이아스-클루시브 백, 21x26.5cm, 9만원대 램다.

화려한 꽃 모양 보틀에 담긴 플로럴 계열의 자켓 향수 100ml, 16만원대 에트로.

상큼한 오렌지 컬러 H 로고 벨클 90만원대 에르메스.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오렌지 컬러 드롭 이어링 6만3천원 프루타 by 마이클.

봄에 어울리는 신록을 담은 핑크 컬러 노트 각 1천5백원대 몽클레르.

로맨틱한 핑크 세이브에 컬러를 더한 카홀더 꽃 장식을 더한 카홀더 80만원대 루이비통.

방가방이 어울릴 모티프 디자인을 담은 핑크 컬러 카홀더 80만원대 루이비통.

세련미와 유쾌함을 겸비한 에디션 이색, 핑크 컬러 이터전

신시몬 코요티네를 위한 상큼한 핑크 컬러 벨클 90만원대 에르메스.

강렬하면서도 산뜻한 레드 컬러를 필두로, 알록달록 상큼한 과일을 담은 컬러로 물들인, 여성을 위한 스프링 컬렉션.

# for her Selection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핑크 골드 소재의 디탈 원고 장식 베젤과 깔끔한 레드 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핑크 컬러 레이디 워치 1천만원대 불가리.

사각 바클이 매력적인 비브 카바 백, 25x31.5cm, 3백70만원대 로저 비비에.

상큼한 옐로 스웨이드를 가락 미장 스텔라트 와이브르.

- 몽블랑 1670-4810
-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 발렌티노 가락바니 02-2015-4653
- 루이비통 02-3432-1854
- 펜디 02-2056-9022
- 에르메스 02-542-6622
- 마이클 02-6947-1270
- 토리버치 02-515-4080
- 버버리 080-700-8800
- 겐조 02-6906-3506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프라다 02-3218-5331
- 핀도라 1688-5501
- 에트로 02-3443-5050
- 불가리 02-2056-0170
- 스튜디오 와이츠먼 02-6905-3991
-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골드와 핑크 컬러가 아우라진 로맨틱한 모티브 컬러 달린 브라이슬릿 72만원대 램다.

관객감이 돋보이는 도트 프린트 그려진 레인코트 3백30만원대, 저지 윌비스 1백만원대 모두 프라다.

Kendall - 2018



TOD'S  
MADE IN ITALY

Tods.com

Tods - Seoul office - 02-3448-8201



포켓 디테일의 컬러 블로킹 정미 2백40만원 발렌타노.

선글라스와 인경을  
소지할 수 있는  
옐로 아이웨어  
피우치 1백33만원  
발렉스트라.

스피릿리프트 유행형  
에이스티트 인버트, 로우서  
에디터 이젠

오프로드를 평생 6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그린 컬러 타이탄에  
그린 컬러 가죽 스트랩을  
장착한 안티폴리노 워치  
33만원대 피아제.

화이트 옐로 라이닝과 그린  
컬러가 신뜻한 스니커즈  
1백만원 톨포드.

화이트 스포츠 팬에 보이는  
어두운 색상의 인상은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한 브라운과  
켄조는 늘 그거 자랑 킷.

레오퍼드를  
연상시키는  
패턴이 들어간  
라이터 13만원대  
에스.티.듀롱  
파리.

블루 프레임의 더블  
브리지 선글라스 30만원대  
조르조 아르마니 by  
룩스타카 코리아.

유색한스(이탈) 모티브  
백 황 23만원  
안아 한드미치.

오렌지와 블랙의 조화가  
강렬한 컬러 블로킹 윈드브레이커  
1백만원대 몽클레르.

뒤편의 상큼한 옐로 포인트  
컬러가 매력적인 니트 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한눈에 들어오는 블루와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의 백팩, 40X32cm, 59만원 켄조.

60년 전통의  
50년째  
100% 가죽  
100% 이탈리아 by  
켄조

청량감이 느껴지는  
블루 색상의 등나무  
고임 장식 보틀이  
인상적인 아티잔  
블루 향수, 125ml,  
11만원대 존 바버토스.

한쪽 어깨에 메거나 크로스  
백엔 스포티한 무드도 즐길 수  
있는 크로스 백, 31X17.5cm,  
1백15만원 발리.

- 토즈 02-3438-6008
-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 에스.티.듀롱 파리 02-2106-3596
- 발렌타노 02-2015-4653
- 톨 브라운 02-6905-3505
- 발렉스트라 02-3438-6196
- 톨 포드 02-6905-3534
- 켄조 02-6905-3506
-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 발리 02-3467-8935
- 존 바버토스 02-3443-1805
- 에르메스 02-544-7722
- 피아제 02-3440-5656
- 몽클레르 02-514-0900
- 안아 한드미치 02-6905-3336
- 10 크로스 코모 02-3018-1010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LLERY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J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돔 페리뇽 P2 2000 샴페인 디너를 빛낸 창조적 협업의 미학

# a sublime Harmony



2 3

인간은 음식을 복잡하게 변형할 줄 알고, 그것을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했던가. 그러한 '재창조' 작업의 정석을 보여준 미식의 향연이 얼마 전 빗꽃 향 가득한 서울 한국기구박물관에서 열렸다. 빈티지 샴페인 명가인 돔 페리뇽(Dom Pérignon)과 프랑스 출신의 국보급 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의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이래 2차 절정기를 맞이하면서 탄생한 '돔 페리뇽 P2 2000'에서 영감을 받은 창조적 협업이 낳은 매혹적인 샴페인 페어링 만찬 현장을 소개한다.

미술이 시각의 예술이고 음악이 청각의 예술이듯이, 흔히 요리는 미각의 예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리를 정말로 예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분명히 존재한다. 혹자는 손으로 만드는 일상적 작품이라는 맥락에서 요리를 '수공예'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리 미학'을 찬양하는 미사가는 이에 발끈하기도 한다. 확실한 건 세상에는 예술가나 창조자로 불리는, 그리고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춘 요리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건 요리 테크닉, 맛, 음식의 조화 같은 요소는 기본이고 다른 누구와도, 무엇과도 차별되는 테이블 연출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일 것이다. 이처럼 심재함이 깃든 고도의 내용이 요구되는 총체적 예술 작업을 창의적으로 버무려낼 '지휘자' 역할을 맡을 인물로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만큼 못 미식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이름은 좀처럼 없지 않을까 싶다. 레스토랑을 토대로 한 미식 문화의 근간인 프랑스 요리의 대표 주자이며 레스토랑의 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인 '미슐랭 스타'를 20개 가까이 보유한 별 중의 별, '요리 예술'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빼어난 창의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뿌리인 프랑스 요리를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 맞춰 풀어내는 글로벌 감각,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성장하게 하는 조직력까지 두루 갖춘 걸출한 셰프가 바로 알랭 뒤카스 아닌가. 그런 그가 샴페인업계의 '왕중왕'이라 일컬어지는 브랜드 돔 페리뇽(Dom Pérignon)과 만났으니, 미식의 세계에서는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게다가 알랭 뒤카스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별들의 만남, 프랑스가 낳은 21세기 최고 스타 셰프와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동질성을 지닌 우정은 어떤 단계에 이르든 반드시 프로젝트로 실현되어야 마땅하지요." 돔 페리뇽이라는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셰프 드 캄브(Chef de Cave, 수석 와인메이커) 리샤 지오프roi(Richard Geoffroy)는 알랭 뒤카스와의 협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게 아니라면 그저 정신적 사랑에 그치게 되는 셈"이라고 장난기 있게 덧붙이면서 말이다. 각각 샴페인과 요리라는 분야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하면서 2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던 이 둘의 만남은 그만큼 필연적이고도 자연스러웠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첫 포문을 연 돔 페리뇽과 알랭 뒤카스의 협업 프로젝트는 지난해 홍콩과 베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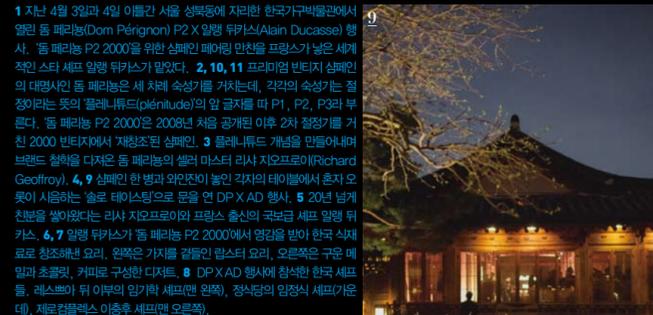
징을 거쳐 올해 서울 땅을 밟았다. 돔 페리뇽과 알랭 뒤카스의 공통분모는 단연 강력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재창조로,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식재료를 반영해 매번 다른 창조물을 빚어낸다. 서울 성북동의 명소로 한국적인 정체성을 간직한 한국기구박물관은 그 창의성을 펼쳐낼 무대로 손색이 없었다. 빗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 초의 봄날 저녁, 한국기구 박물관에서는 리샤 지오프roi와 알랭 뒤카스가 40여 명의 손님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샴페인 내용과 고아한 정취가 기막히게 어우러졌다. 리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나친 꾸밈이 없는, 가공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굉장한 따뜻함이 묻어나, 친밀감이 있으면서도 적당한 거리가 있는 분위기가 정말이지 좋았다"고. 하지만 'DP X AD'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엄연히 '샴페인'이었다. 돔 페리뇽 샴페인은 세 차례 숙성기를 거치는데, 절정이라는 뜻의 '플레니튜드(plénitude)'의 알 글자를 따 P1, P2, P3라 부른다. 알랭 뒤카스가 이번엔 '샴페인 페어링' 프로젝트를 맡은 대상은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이후 2차 절정기를 거친 2000 빈티지에서 '재창조된 돔 페리뇽 P2 2000'. P2의 특성은 '에너지로 축약되는데, 그중 P2 2000은 보다 조화롭고, 복합성을 띤 샴페인'이라고.

### 한국적인 정취에서 한국 식재료로 빛낸 궁극의 샴페인 페어링

아욱고 인들에서 샴페인 한 병과 와인잔이 놓인 각자의 테이블에서 P2를 혼자 오롯이 사용하는 '솔로 테이스팅'이 이어졌는데, 이는 샴페인 행사 주최인 이유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행위였다. 미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프랑스가 낳은 국보급 스타 셰프가 이처럼 샴페인을 주인공으로 한 페어링을 대하는 방식이 궁금했다. "그야 돔 페리뇽은 저에 앞서 수세기를 거처온 존재니까요." 알랭 뒤카스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는 프랑스 미식 문화에서는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항상 같이 생각하는 게 전통이며, 대개 샴페인으로 정찬을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합인데, 돔 페리뇽의 탁월함을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돔 페리뇽은 여러 유형의 재료와 풍미, 촉감과 잘 어우러지는 뛰어난 샴페인이라 셰프로서 그러한 특성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요리 페어링을 한다는 것, 여기에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도전이에요." 알랭 뒤카스 팀은 한국 행사를 위해 수개월에 걸친 준비 작업을 세심히 진행했다. 요리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할이라고 강조하는 뒤카스의 철학을 반영하듯이 우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프랑스 요리와 어떤 궁합을 창조할 수 있을지 분석한다는 팀은 지난 겨울부터 한국을 수차례 방문해 꼼꼼히 조사하고, 돔 페리뇽 팀과도 긴밀한 협업을 펼쳐나갔다. 실제로 블랙 트루플(검은송로)만 빼고 대부분 다 한국에서 재료를 공수했다고. P2의 복잡다단한 매력을 살린 여섯 가지 코스로 이뤄진 만찬 중 흥미로운 결과물은 김치 양념을 섞은 크림소스를 곁들인 채소구이, 그리고 만두였다(양물성을 한껏 살리는 캐비아 요리는 늘 그렇듯이 샴페인 페어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조이자 '백미'였음은 물론이다). '긴장한 미식을 지형하는 알랭 뒤카스는 요즘 해산물과 채소를 주제로 쓰고 있고, 한국 만찬에서도 김치, 가지미, 농어 등을 활용했지만, 특별히 한우를 넣은 만두 요리도 선보였다는 점이 참신하게 다가왔다(한우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에 매료됐다고).

###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글로벌하게 통한다는 것

돔 페리뇽의 빈티지 샴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부각하고 '플레니튜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주인공답게 철학적 깊이가 남다르고 언어 구사력도 뛰어난 리샤 지오프roi는 이만 참을 두고 "조화가 조화를 만났다(Harmony meets harmony)"라고 표현했다. 돔 페리뇽과 미식의 조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식재료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장소와 만찬의 조화... 그야말로 수궁 가는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돔 페리뇽이든 미식이든 굳이 과장스러운 수식어를 붙이는 식으로 호들갑을 떨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는 실제로 누군가 자신에게 돔 페리뇽을 마시고는 '샴페인 이상(beyond champagne)'이라고 말할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고백(?)도 했다. 그는 그저 '이게 바로 샴페인'이라는 표현을 선호할 따름이다. "많은 와인메이커가 여러 '급'을 뜻하는 분류 체계를 지닌 다양한 범위의 샴페인을 판매하지만, 돔 페리뇽은 그렇지 않아요. 돔 페리뇽은 그냥 돔 페리뇽이지요." 단지 숙성기에 따른 P1, P2, P3 같은 분류 체계가 돔 페리뇽의 주된 특징인 셈인데, 이 역시 자신이 만들어왔기보다는 '발전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을 포함해 유기체라면 직선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숙해나가기 마련인데, 돔 페리뇽 역시 각 빈티지 안에서 절정기를 거치는 단계를 포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정말로 훌륭한 와인, 그리고 지역 요리는 국경을 뛰어넘어 세상과 대화하는 법"이라고. 세상에는 팬츠는 와인인 요리가 많지만, 대부분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데 그칠 뿐, 본연의 경계 밖에서도 널리 사랑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런 경지에 이르러면 전통을 사랑하고 지키되 다른 지역 문화의 맥락을 읽고 반영하는 현대적인 해석의 노력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흡수되는 식문화 특유의 '느림의 미학'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게 만드는 대목이다. **글 고선연**



1 지난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한국기구박물관에서 열린 돔 페리뇽(Dom Pérignon) P2 X 알랭 뒤카스(Alain Ducasse) 행사. 돔 페리뇽 P2 2000을 위한 샴페인 페어링 만찬을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가 맡았다. 2, 10, 11 프리미엄 빈티지 샴페인의 대명사인 돔 페리뇽은 세 차례 숙성기를 거치는데, 각각의 숙성기는 절정이라는 뜻의 '플레니튜드(plénitude)'의 알 글자를 따 P1, P2, P3라 부른다. 돔 페리뇽 P2 2000은 2008년 처음 공개된 이후 2차 절정기를 거친 2000 빈티지에서 '재창조된 샴페인'. 3 플레니튜드 개념을 만들어낸 브랜드 철학을 다져온 돔 페리뇽의 셀러 마스터 리샤 지오프roi(Richard Geoffroy). 4, 9 샴페인 한 병과 와인잔이 놓인 각자의 테이블에서 혼자 오롯이 사용하는 '솔로 테이스팅'으로 문을 연 DP X AD 행사. 5 2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던 리샤 지오프roi와 프랑스 출신의 국보급 셰프 알랭 뒤카스. 6, 7 알랭 뒤카스가 돔 페리뇽 P2 2000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 식재료로 창조해낸 요리. 왼쪽은 가지를 곁들인 랍스터 요리, 오른쪽은 구운 메밀과 조종김, 캐비아 구상한 디저트. 8 DP X AD 행사에 참석한 한국 셰프들. 레스토랑이 뒤 어두워지기 전까지 셰프들은 양식, 장수, 정돈의 상징인 한국 셰프이다. 재료감각을 이룰 후 셰프들은 양식, 정돈의 상징인 한국 셰프이다.

10

(왼쪽부터 차례대로) **반올리브 이벨** 합 위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여성 위치로 자리 잡은, 진솔한 사랑과 행복의 매끄러운 표현을 담았다. 알함브라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상이 배경을 따라 유망하게 움직인다. 23만 원대. 문의 00738-852-16122 파키제프제진위치 브랜드를 상징하는 유망하게 움직이는 원 포인트 다이아몬드 베젤이 특징인 여성 위치. 실용하지만 특유의 여성스럽고 드러나지 않은 무드가 느껴진다. 리프스 블루 컬러의 알라미라 스트랩은 다른 컬러의 스트랩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 1천2백만 원대. 문의 02-540-2297 **오에기 드 빌** 트러져 오에기 클러스 위치 컬렉션인 드 빌에서 선보이는 여성 시계용 모델. 다이얼 측면을 강하게 위아한 나선형으로 새겨진 다이아몬드 디테일과 유트란 로마시시안 스타일과 결합한다. 시계 뒷면에 그 원리를 구현한 스마트 미터를 부르는 개미라고 성세한 프티브도 확인할 수 있다. 1천만 원대. 문의 02-511-5797



the WATCH WOMAN

세계 선물은 사랑하는 그녀와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로맨틱한 선택이다. 우아한 그녀를 닮은 위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론진 알베르트** 여성 위치 컬렉션으로 유명한 디자인으로 론진 여성 위치 컬렉션을 대표하는 제품. 애플 워치로도 사랑받는 디자인이다. 18K 로즈 골드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강조했고,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기능적인 링크로 이루어진 브레이슬릿은 가벼우면서 착용감 또한 뛰어나다. 선프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9백20만 원대. 문의 02-310-1597 **타피니 에트르 2엔조** 위치 티피니의 파인 주얼리 디자인과 최상의 스위스 위치 메이킹 장인 정신의 결합으로 탄생한 여성 위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라인이 특징이며, 모던함과 여성스러운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크라운에는 전설적인 티피니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리운드 브링리먼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아몬드 내 고유의 사멸 열 변화가 각도되어 있어 심미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위치를 소중했다는 만족감까지 더해준다. 9백만 원대. 문의 02-547-9488

(왼쪽부터) **에르메스** 다투렛 주에 드 디안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미니 사이즈의 다투렛 모티브 위에 마더 나뭇잎에 울분꽃을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유니크하다. 데일리 룩에 부담 없이 매찰할 수 있는 주얼리 위치로, 여성스러운 일은 안아 가족 스트랩은 줄여 가지 칼라로 제작했다. 8백만 원대. 문의 02-542-6622 **시셀 J12** 클래식 33mm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 위치 시셀 위치를 상징하는 J12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가장 클래식한 모델.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가 깨끗하면서 모던한 무드를 더해준다. 7백만 원대. 문의 02-3442-0962



(위부터 차례대로) **칼렌틀리안** 위치 앤 주얼리 레베 칼렌틀리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리프 시몬스의 러웨이에서 영감을 받아 패셔-블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위치. 고유한 긴장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컬러 코드를 더한 밴드와 다이얼 패턴이 돋보인다. 23만 원. 문의 02-2143-1820 **스모르보스키 스틸라** 위치 뛰어난 크리стал을 피베 세팅한 우아한 유선형 베젤이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주얼리를 연상시키는 드러나지 않은 디자인으로, 데일리 룩에는 물론 이브닝 룩에도 멋스럽게 매찰할 수 있을 것. 46만 원. 문의 02-3438-6108 **8백만 원** **아메리칸 클래식** 이드모아 퀴츠 레트르 무드가 느껴지는 스퀘어 케이스의 여성 위치로, 부드러운 파스텔 그린 컬러의 가죽 스트랩과 같은 컬러 인피스의 매치가 사랑스럽다. 1937년 출시된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해밀턴의 대표 여성 컬렉션이다. 58만 원. 문의 02-3467-8361 **에드터 베이진**, **권유진**, **이치연**



POSSESSION

Piaget.kr  
+82 (0)2 3467 8924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미도 바르셀라 문레이즈 워치**  
 렌 오메리 하우스의 뛰어난 곡선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워치로,  
 세계적인 건축물이 지난 시간을 초월한 우아함을 직선과 곡선의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6시  
 방향의 문레이즈 창이 특별함을 더한다. 3백9만원.  
 문의 02-3149-9599 **티소 슈랑 데 뒤렌** 1907년 티소 공장이  
 세워졌던 스위스 로콜의 가리 이름에서 본따 제품명을 명명했다.  
 티소의 DNA를 잘 살린 대표 워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세련된  
 케이스 디자인과 블루 다이얼, 고급스러운 가죽 스트랩이 조화를 이뤄  
 세련되고 스포티한 인상을 준다. 인텍스 라인에 장식한 원형 클루  
 드 피리 패턴의 아름다운 디테일 역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 87만원.  
 문의 02-3143-8237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픈 하트** 무브먼트를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해 유니크함을 더한 남성 워치. 기하학적 형태로  
 커튼한 디자인 시리 로 정교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고성은 무브먼트를 채택했지만 합리적인 가격대로 오랫동안  
 해밀턴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제품이다. 8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1백41만원. 문의 02-3467-8361



(왼쪽부터) **카르띠에 산토스 드 가르다에 워치** 1904년에 탄생해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르띠에를  
 대표하며 큰 사랑을 받아온 산토스 워치. 케이스 디자인만으로도 브랜드를 알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인 남성  
 시계로, 올해 특히 훌륭한 퀵 스위치와 스마트 링크 시스템을 더해 더욱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스트랩 아래 위치한 퀵 스위치를 통해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고, 스마트 링크  
 시스템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8백30만원대. 문의 1566-7277  
**블가리 오픈 하트** 아이코닉한 오픈 하트 케이스를 보다 부드럽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모던한 매력을 발하는  
 것과 동시에 매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41mm 다이얼 남성 워치. 42시간 파워 리저브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BVL191 슬로템포를 탑재했다. 7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 the WATCH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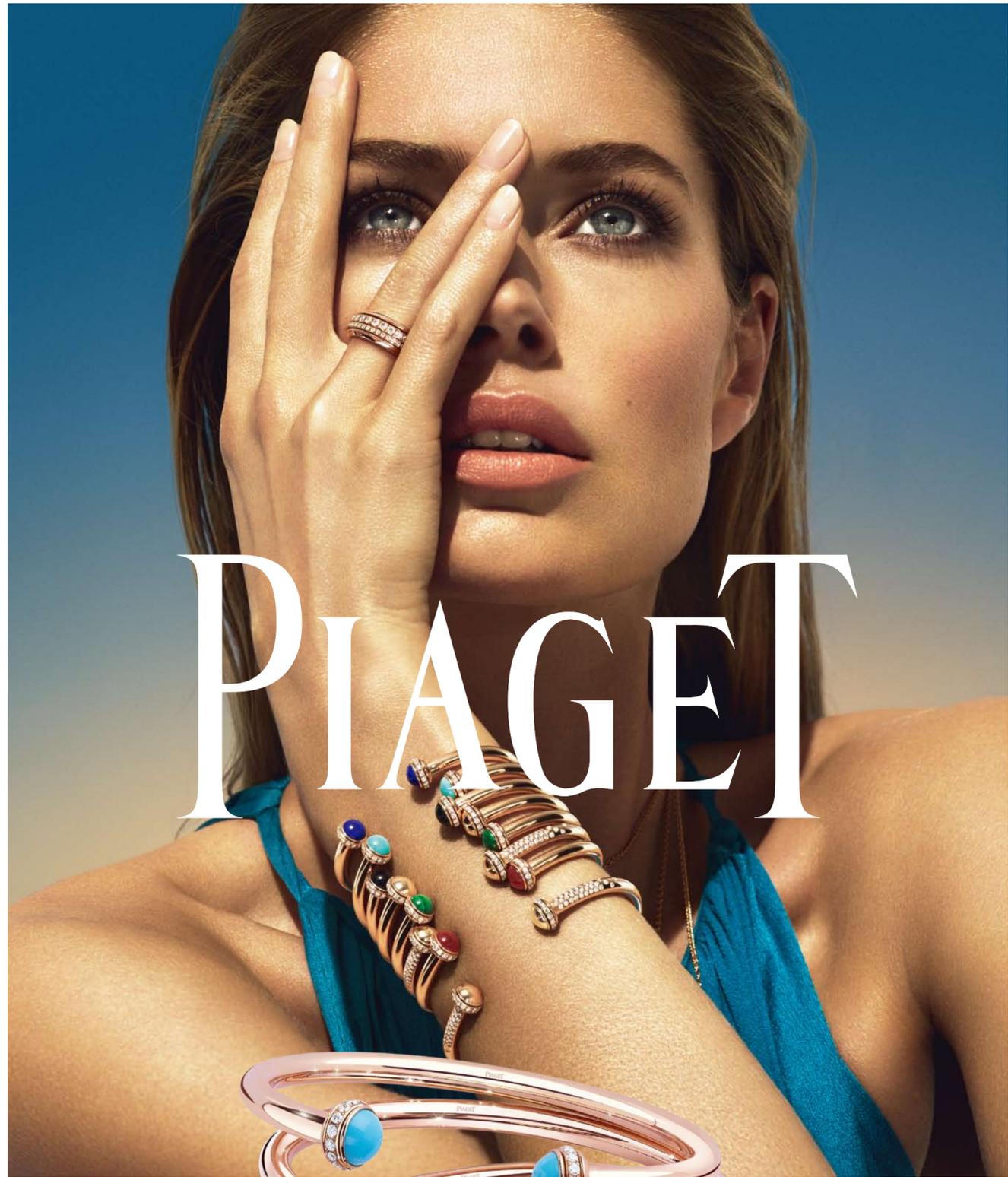
시계 애호가 남성에게 시계는 작은 우주나 다름없다. 기술력, 브랜드 DNA까지 모두 담은 워치는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페트리오니 문레이즈 엔드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브**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 중 가장  
 클래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페트리오니 컬렉션에 문레이즈와  
 레트로그레이드 기능의 데이브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모델.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로망으로 손꼽힌다. 전형적인 순수한 라인이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우아하고, 레트로그레이드를 갖춘 날짜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1백22년 동안 별도의 조정 없이 작동 가능한 문레이즈는 달이 지구 둘레를  
 일주하는 실제 움직임 시야를 기반으로 했을 정도로 극도의 정밀함을 보여준다. 5천만원대.  
 문의 02-3446-0088 **브라게 글라시 문 레이즈 7787** 39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라게의  
 노스우가 장악한 매끈한 그랑퓌 에-렐 디자인을 정확히 글라시 워치의 진수를 보여준다.  
 12시 방향에 문레이즈가,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자리잡혀, 동급 워치 중 가장 얇은  
 3.01mm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591 DRL을 장착했다. 3천7백만원대. 문의 02-3479-1008



(왼쪽부터) **블랑랑 발우레 레트로그레이드 스틸 세컨즈**  
 스틸 케이스로 좀 더 엔트리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블랑랑  
 클래식 워치. 40mm 사이즈의 울트라 슬림 제품이며, 손목에  
 감기는 착용감이 뛰어나다. 6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무브먼트 칼리버 76630를 장착했으며, 6시 방향의 30초  
 카운터에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을 채용했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3149-9597 **홍발랑 스타 레가시 폴 갤러리** 날짜, 요일,  
 문레이즈까지 담은 42mm 스틸 워치. 레드 컬러의 작은 초승달  
 모양 바늘이 날짜를 가리키고, 12시 방향의 2개 창에 요일과  
 월이 표기된다. 브랜드의 상징인 스타 기호세 패턴이 토포인드.  
 5백68만원. 문의 1670-4810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이자연**



# PIAGET



POSSESSION

Piaget.kr  
 +82 (0)2 3467 8924

**Premium Base Make-up**

(왼쪽 면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화도 블랑 브라이트닝 안티블루션 쿠션 파운데이션** 시슬리에서 메이크업과 스킨케어에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아침에 제작한 첫 번째 쿠션 파운데이션 팩트. 14g 13만 원대. **랑콤 블랑 엑스피트 쿠션 자외선블** 아나라 도상의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모링가 추출물과 바이칼린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13gX2리필 포함 7만5천 원대. **리프러리 스킨 케어 아센스-안티오이션** 혁신적인 스킨케어의 최강자 리프러리에서 케어와 피부 질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첫 선보인 쿠션 팩트. 15mX2리필 포함 25만3천 원대. **샤넬 레 베쥬 슈어 쉐시 글로우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SPF 40/PA++** 마치 얼굴에 온온한 베일을 감싸듯, 비오는 즉시 피부 톤과 결을 보정해준다. 30ml 7만2천 원. **랑콤 뎀 마리를 및 파운데이션** 랑콤의 베스트셀러 뎀 마리를 파운데이션을 한껏 업그레이드한 버전. 더욱 가볍고 촉촉해진 포뮬러와 마치 구름같이 가벼운 텍스처가 장점이다. 30ml 6만18천 원대.



the BEAUTY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좋은, <스타일 조선타일>가 제안하는 뷰티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ake a Gorgeous Look**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화도 립 트루스트** 크레용 타입 립 펜슬로, 입술에 컬러가 달라져 부드럽게 녹아들며 촉촉함이 오래간다. 2.5g 4만8천 원. **샤넬 루쥬 코코 #142** 샹기 남자는 밝은 핑크 컬러 립스틱. 한정 제품으로 선보이니 사두를 것. 3g 4만3천 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 #304** 기존 립스틱보다 무려 4배가 얇은, 마치 입술에 컬러 타투를 입힌 듯 뛰어난 밀착력이 장점이다. 3.9ml 4만5천 원대. **데코르테 아이 글로우 쉐 #GD082** 단 한 번의 터치로도 빛을 머금은 보사처럼 반짝이는 눈매를 완성해준다. 6g 3만2천 원. **데코르테 크림블러쉬 #PU150** 한 듯 안 듯 자연스러우면서 투명한 광채를 연출하는 라벤더 컬러의 블러시. 6g 4만2천 원. **랑콤 쿠션 블러쉬 샵 #032** 두 번에 살짝 두드려주면 되는 간편한 쿠션 타입의 틴트 블러시. 7g 5만 원대. **샤넬 레 베쥬 슈어 내추럴 아이세도 팔레트**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로 구성해,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특별한 날을 위한 강렬한 메이크업까지 가능하다. 4.5g 9만 원.



**For Precious Ski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모이스처 리포솜** 일명 '보아 에센스'로 불리며 브랜드를 상징하는, 세안 후 제일 처음 바르는 기초 관리 파스트 에센스. 세안 후 바로 바른다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안주하고 빠르게 진정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유연하게 풀어준다. 60ml 16만8천 원. **랑콤 레네지 오피다-리프트 울트라 플 스펙트럼 안티에이징 크림** 속부터 광채를 끌어올리고, 탄력을 높여주는 크림. 끈적한 텍스처가 피부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밀착된다. 꾸준히 사용하면 주름을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피부결이 한층 맑아지는 화이트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50ml 17만 원대. **리프러리 화이트 케어 일루미네이션** 필 인뮤전 보틀을 통해 보이는, 화이트 케어 성분은 담은 동글동글한 텍스처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피부에 건강한 잔웃음 광채와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안겨준다. 30ml 6만16천 원. **다올 프레스티지라 마이크로 힐드 로즈** 고농축 1만 여 개의 로즈 마이크로 필을 담은 하이브리드 텍스처의 오일 세럼으로, 자외선 피부에 영양분을 전해 율리다 에-아-티를 선사한다. 30ml 29만5천 원대.



**Lovely Scent**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올 자도르 보디 미스트** 끈능적인 로즈와 찬란한 일랑요랑, 재스민 추출물이 한껏 어우러져 강렬한 플로럴 향을 풍기며, 도포 즉시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온몸에 활기를 북돋아준다. 100ml 6만8천 원. **프라다 르 올드 향수** 브랜드를 상징하는 시파이는 가죽 옷을 입은, 깨끗하고 파우더리한 우디 향의 남성 향수. 아이리스 향에 풀 향이 그윽한 네롤리 향, 그리고 스파이시한 진저 향까지 더해졌다. 100ml 14만 원대. **다렉 램 10 크로스비 향수** 패션 브랜드 데렉 램에서 처음 선보이는 향수 라인으로, 107지 스토리를 107지 향에 담았다. 그중 '드링크 온 유스'는 사랑과 욕망, 젊음을 표현한 향으로, 사과와 허니서플 등 플로럴 향으로 완성했다. 50ml 11만2천 원. **샤넬 N5 로 온 핸드크림** 조약돌을 형상화한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킨 핸드크림. N5 로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50ml 8만2천 원. **시슬리 이자미 향수** 5월에 단 2주간 파이는 특별한 장미 에센스로 만든 향수. 50ml 15만 원대. **에디터 베이진, 권유진, 이지연**



시슬리 080-549-0216 랑콤 080-001-9500 리프러리 080-511-6626  
샤넬 080-332-2700 데코르테 080-568-3111 다올 080-342-9500  
조르지오 아르마니 080-022-3332 프라다 향수 02-3443-1805  
다렉 램 향수 02-3443-1805

Mercedes-Benz Select.

The new fragrance for men.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수일판매처 : www.ambselect.com | www.cso.kr | Tel : 080-383-3454



Mercedes-Benz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한 편의 아트피스 같은 프린트가 인상적인 화이트 원피스 2백79만원 **살바토레 페라기모**,  
 (우부터 아래로) 핑크 컬러 제이 다 백, 26X21cm, 2백35만원 **아이디너**, 레드 컬러 가죽의 벨트 아르테미스 백, 19.5X15cm, 2백90만원대 **로로피아나**,  
 바리나 플랫 슈즈 75만원 **살바토레 페라기모**,  
 리본 장식 핑크스 1백10만원대 **프라다**, 핑크 렌즈 선글라스 20만원대 **레이벤 by 록스타카 코리아**,  
 로고 디테일 그레이스 러스 백, 29X18cm, 1백60만원대 **마우미우**, 스웨이드 미드 힐 62만원대 **아.테스토니**, 패치 장식의 자갈 71만원 **발리**.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데님 재킷 1백37만원, 레드 스트라이프 패턴 티셔츠 63만원, 화이트 컬러 화이트 팬츠 62만원 모두 **몽클레르**,  
 (우부터 아래로) 벨트도 디테일의 벨트 백, 32X25cm, 2백55만원 **바버리**, 트롱 프라우 스크린 프린트가 그려진 다이에 아우르 캔버스 네오노에 백, 25X25.5cm, 2백36만원 **루이 비통**, 태슬 장식 화이트 슬리이드 슈즈 77만원 **토즈**, 민트 컬러 코노스 백, 17X12.5cm, 1백23만원대 **토즈**, 플러워 프린트 델리아 백, 20X16cm, 1백55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기모**, 살바 컬러 스니커즈 23만원 **락포트**.

# the FASHION WOMAN

실용적인 스타일링부터 포인트가 되어줄 특별한 액세서리까지, 여성을 위한 기프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그레이 재킷 1백58만원, 화이트 롱 블라우스 6528만원, 화이트 스카트 1백38만원, 네크리스 8928만원 모두 **파비아나 팔리피**,  
 (우부터 아래로) 화이트 컬러 마쉬 컬러리 백, 27X20cm, 55만원 **마이클 코어스**, 투톤 컬러 핫 8928만원 **파비아나 팔리피**, 마그넷 클로저 장식의 브라운 가죽 토트백, 23X23cm, 58만원 **0914**, 새로운 로고 'Guccy'를 프린트한 미니 슬더백, 19X16.5cm, 2백28만원 **구찌**, 벨벳 슬리퍼 1백17만원 **구찌**, 알 모티브 키 링 1백만원대, 터키이즈 컬러 자갈 2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왼쪽 스타일링 아이템) 그린 실크 재킷 1백90만원대, 보 디테일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70만원대, 그린 실크 팬츠 90만원대 모두 **분다삼**,  
 (우부터 아래로) 스타드 장식 나일론 백백, 30X27cm, 1백90만원대 **프라다**, 화이트 프란지 로퍼 1백만원대 **에르메스**, 투톤 컬러 피아짜 토트백, 25.5X17cm, 3백99만원 **보테가 베네타**, 트윙클 스카프 20만원대 **에르메스**, 그린 약어가죽 클러치 백, 27X18.5cm, 3백2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골드 컬러 로퍼 88만원 **발리**, 브라운 가죽 샌들 21만9천원 **릿윙킴**,  
**살바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아이디너** 02-546-7764  
**로로피아나** 02-546-0615 **프라다** 02-3218-5331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마우미우** 02-3218-5331  
**아.테스토니** 02-554-4310 **발리** 02-3467-8935  
**분다삼** 02-2056-1234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파비아나 팔리피** 02-6960-0843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2-2230-1225 **릿윙킴** 02-3467-8784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0914** 02-2056-0914  
**구찌** 1577-1921 **몽클레르** 02-514-0900 **바버리** 080-700-8800  
**루이 비통** 02-3432-1854 **토즈** 02-3438-6008  
**락포트** 02-6137-5100



# OBZÉE

OBZEE.COM  
TEL. 1544-3966

스타일링: 유원영, 이소영, 김은서

(왼쪽 스타일링 이미지) 저미 디테일의 바디 니트 3백만원, 바디 니트 1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오른쪽 스타일링 이미지) 가죽 코인 장식이 돋보이는 카키 컬러 백팩, 45X27cm, 2백92만원 **보테가 베네타**. 가죽 생 디테일의 데님 캡 60만원대 **에르메스**. 나무 소재 밑창의 슬리퍼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레드 포인트 화이트 스니커즈 1백78만원 **브리오니**. 스타치 디테일 클러처, 30X21cm, 1백24만원 **에르메스**도 **제나**.

(왼쪽 스타일링 이미지) 그레이 더블 버튼 카디건 1백69만원, 파플 니트 1백55만원, 블루 셔츠 69만원, 비이지 컬러 면 팬츠 83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차넬리**.  
(우측 스타일링 이미지) 오렌지 컬러 토트백, 37X29cm, 2백23만원 **토즈**. 라터링 프린트 클러처 78만원 **버버리**. 카키 컬러 티셔츠 신클라스 20만원대 **레이팬 by 록스타카 코리아**. 네이비 스니커즈 19만원 **핏플랩**. 우주선 패치 달착이 가능한 에이스 스니커즈 90만원 **구찌**. 블랙 클러처, 24X33.5cm, 50만원 **보스 맨**. 그레이 타이 23만원 **가날리**.



the FASHION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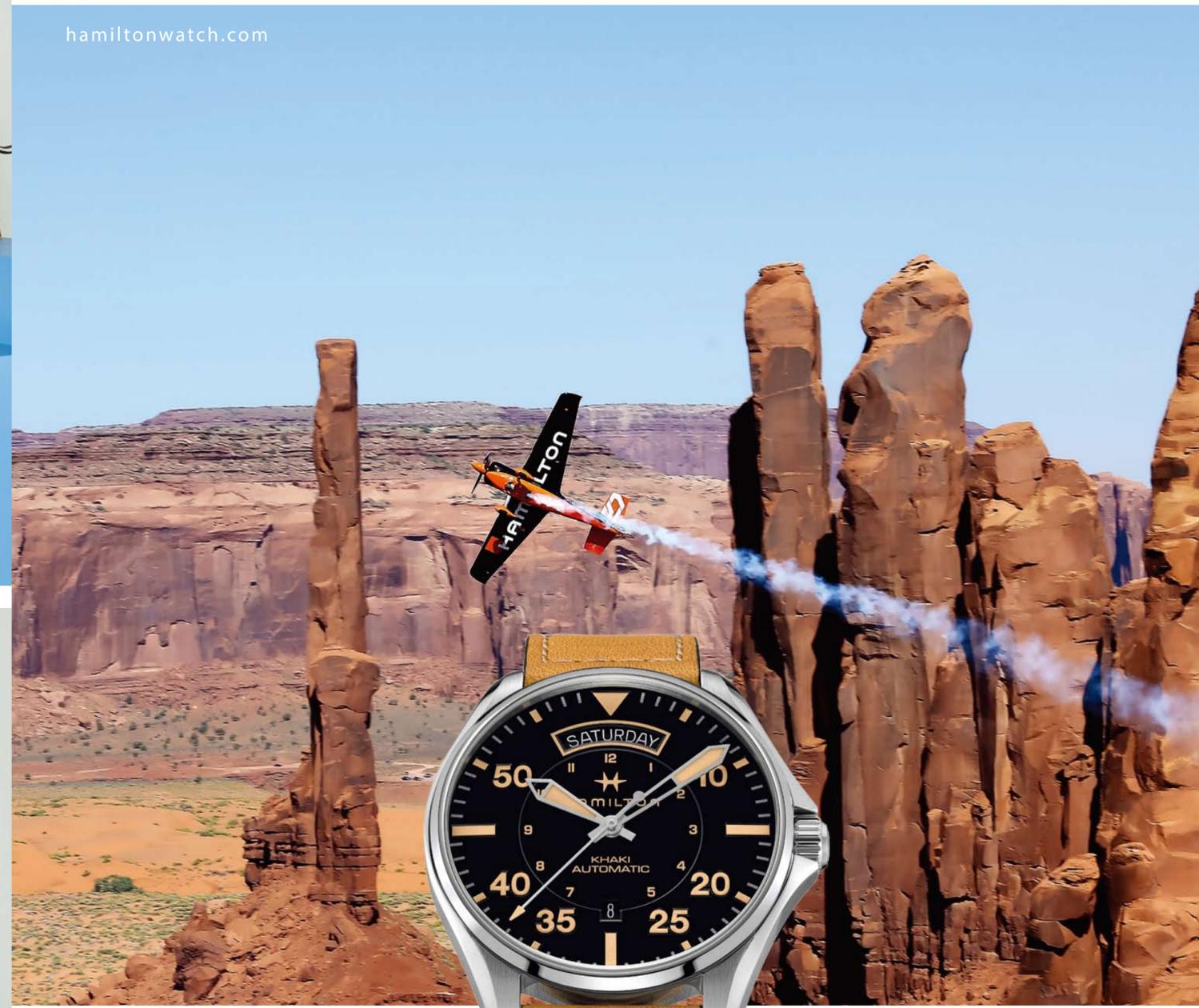
클래식한 디자인과 패셔너블 터치를 더한, 남성을 위한 기프트 가이드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스타일링 이미지) 라벤 재킷 3백30만원, 화이트 라벤 셔츠 60만원, 화이트 팬츠 1백30만원 모두 **로로피아나**.  
(오른쪽 스타일링 이미지) 인트레치아도 기법으로 완성한 블랙 히프 셔츠, 25X15cm, 1백78만원 **보테가 베네타**. 블루 체크 셔츠 92만원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폴리스**. 안소가죽 소재의 클러처, 33X25cm, 59만원 **몽블랑**. 네이비 컬러와 오렌지 색상이 조화로운 벨트 55만원 **살바토레 페라기노**. 화이트 스니커즈 54만원 **발리**.

(왼쪽 스타일링 이미지) 라벤 재킷 2백99만원, 그린 컬러 면 셔츠 49만원, 라벤 팬츠 95만원, 그린 스카프 22만원 모두 **에르메스**도 **제나**.  
(오른쪽 스타일링 이미지) 네이비 컬러 브리프케이스, 36X28cm, 1백39만원 **살바토레 페라기노**. 다양한 컬러가 아우라진 스카프 2백40만원대 **로로피아나**. 그린 컬러 슬림은 49만원 **몽블랑**. 아, 테스토니, 라자드 프린트 자켓 42만원 **몽블랑**.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33만원 **확포트**. 피케 티셔츠 21만원 **보스 맨**. 에디터 **베미진**, 권유진, 이자연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801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도 **제나** 02-518-0285  
**브리오니** 02-3274-6483 **살바토레 페라기노** 02-3430-7854  
**로로피아나** 02-546-0615 **아, 테스토니** 02-554-4310  
**몽블랑** 1670-481 **확포트** 02-6137-5100  
**보스 맨** 02-515-4088 **발리** 02-3467-8835  
**토즈** 02-3438-6008 **브루넬로 쿠차넬리** 02-3448-2931  
**버버리** 080-700-8800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핏플랩** 02-3467-8784 **가날리** 02-3467-8803  
**구찌** 1577-1921 **브룩스 브라더스 레드폴리스** 02-6002-1818



**KHAKI PILOT DAY DATE**  
AUTOMATIC SWISS MADE

100 YEARS OF  
TIMING THE SKIES



MONO STORE 롯데백화점 중동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하남점 AK플라자 구로본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구점 디큐브시티점 목동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천호점 충청점 김해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구리점 노원점 대전점 동래점 분점 부산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인천점 청량리점 평촌점 **DONGWHA DFS DOOTA DFS LOTTE DFS MAIN COEX WOLDDTOWER BUSAN JEJU SHILLA DFS SEOUL HDC SHINSEGAE DFS MAIN INCHEON AIRPORT CENTUMCITY HANWHA GALLERIA DFS 63**



메탈 라운드 모델로 빛을 받으면 렌즈의 컬러가 한층 어두워지는 레이첼 O'닐브 컬렉션 23만8천원 **레이벤 by 록스타카 코리아**, 문의 02-501-4436

생텍쥐페리의 (아원왕자)에서 영감을 받아 금빛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마이스티스틱 르 프랑 슐리테어 만년필 2백4천원 **홍남방**, 문의 1670-4810



세련된 소재와 이브데코 모티프로 주황에 품격을 더하는 카르띠에 홈 컬렉션 볼 20만원대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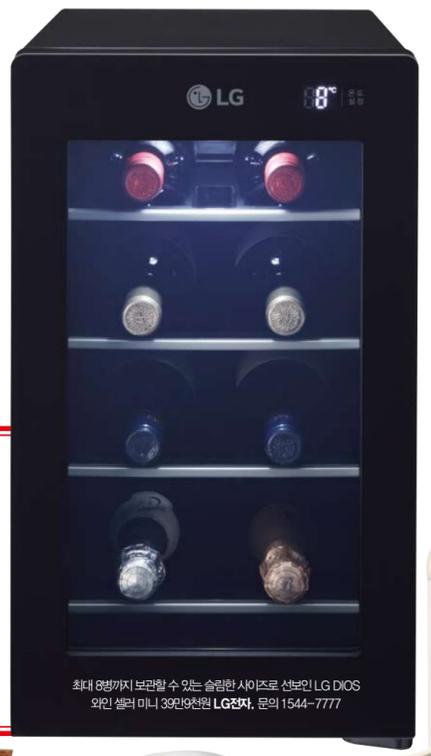
슬림한 디자인과 인력센서, RFID 칩솔모 교체 알림 기능으로 더욱 똑똑해진 필립스 소니케어 프로텍티브플린 3.0 17만9천원 **필립스**, 문의 080-600-6600



아이와 어른 모두가 좋아할, 정교하게 카팅된 크리스털로 완성한 마키마우스 셀러브레이션 48만7천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타치 헌터으로 신선함과 풍이 가득한 다양한 캡슐 메뉴를 추출할 수 있는 네스카페 플레구스토 이클립스 2만4천원 **네스카페 플레구스토**, 문의 080-234-0070



최대 9병까지 보관할 수 있는 슬림한 사이즈로 선보인 LG DIOS 와인 셀러 미니 39만9천원 **LG전자**, 문의 1544-7777

입체적인 패턴과 아이보리 컬러 가죽 디테일로 모던함을 더한 데노보 컬렉션, 20만치, 60만원대 **히트만**, 문의 02-3448-5914

# the LIVING

상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인테리어 오브제와 실용적인 리빙 아이템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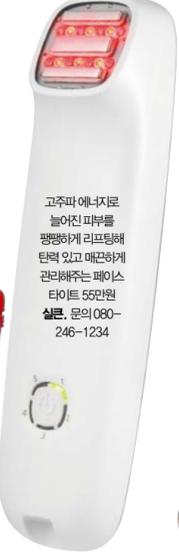
다육 강화된 필터 기능과 혁신적인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로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주는 다이슨 퓨어 쿨™ 공기 청정기 타워형 89만8천원 **다이슨**, 문의 1588-4253



인테리어 오브제에도 훌륭한, 티파니의 아이코닉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컬러 블록 파기뱅크 19만원 **티파니**, 문의 02-547-9488



목직향 우드 향과 사니몬이 조화로운 케노샤 홈 디퓨저 캔들 7만6천원 **시몬스**, 문의 1899-8182



고주파 에너지로 늘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리프팅해 탄력 있고 매끈하게 관리해주는 페이스 타이트 55만원 **실론**, 문의 080-246-1234



화력이 강력한 것은 물론, 브렌드의 시그처 로고와 패턴을 활용해 프리미엄 디자인을 자랑하는 미에스트 시리즈 이다 콜인덕션 3구 3백50만원대 **휘슬러**, 문의 080-400-4100



이클립스 2만4천원



풍부하고 우아한 풍미로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리는 크루그 그랑 큐베 164 에디션 30만원 중반대 **크루그**, 문의 02-2188-5100



브렌드 특유의 레트로풍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캣자수 장식의 차이바리 의자 3백56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 녹용에서 천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 천녹



(왼쪽부터) 바를 따라 움직여 리듬감 있게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유니크한 밸런스 노트 다이아몬드 파베 네크리스 3백20만원대, 18K 화이트 골드 바에 6mm 이코아 진주와 최상급의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세이프가 돋보이는 밸런스 슬로 네크리스 1천1백만원대 모두 **타사기**.



# the JEWEL

서로 다른 사이즈의 로즈 골드 원형 디스크에 하나는 마더오브펄, 다른 하나는 양면에 카날리안과 마더오브펄, 또는 밀라카이트와 옉닉스를 세팅한 불가리 불가리 클래식 브레이슬릿. 스톤을 회전시켜 색다른 무드의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각 8백만원대 **불가리**.



(위부터) 브랜드의 이니셜인 T를 활짝 웃는 스마일 모티브로 워트 있게 표현한 티파니 T 스마일 다이아몬드 펜던트 5백만원대 **티파니**, 하트 모양의 꽃잎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우아하고 일체감 있는 플라워 3송이로 완성한 프라벨 컬렉션 네크리스 5백9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Latisha Long Necklace**  
블랙과 화이트 크리스털로 장식한 꽃 모양 펜던트와 아름다운 크리스털 진주를 함께 세팅한 리티샤 롱 네크리스. 롱 실루엣으로 우아하게 연출하거나, 두 번 감아 짧게 연출하면 한층 더 로맨틱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33만원 **스와로브스키**.



**Latisha Choker**  
블랙과 화이트 크리스털 장식의 꽃 모양 펜던트 초커 네크리스. 단정한 니트 톱 또는 여성스러운 원피스에 함께 매치하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 리티샤 초커 네크리스 23만원 **스와로브스키**.



반짝이는 주얼리만큼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선물이 또 있을까. 럭셔리 하우스의 시그너처 디테일을 담은 주얼리라면 보는 순간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사텔의 X 자 칼링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하면서도 대담함이 느껴지는 옐로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8백만원대 **사텔 화인 주얼리**, T 라인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모던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으로, 클러킹 잠금장치가 있어 손쉽게 착용 가능한 티파니 T 투 헌트 18K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티파니**.



(왼쪽부터) 성공, 용기, 애절한 직관 등의 의미를 담은 옉닉스 원석을 세팅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몰레토 데 카르파에 브레이슬릿 2백10만원대 **카르파에**, 앞·뒷면 구분 없이 착용해도 예뻐 만큼 심세한 꽃 모티브와 고급스러운 마더오브펄 세팅이 돋보이는 오메가 플라워 컬렉션 브레이슬릿 3백만원대 **오메가**.



파이어를 상징하는 포제션 모티브에 그린 칼라의 밀라카이트와 청명한 스카이 블루 칼라의 터퀴이즈 원석을 카보숑 세팅한 포제션 핑크 브레이슬릿 각 2백만원대 **파이에**.



(위부터)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믹스한 대담하고 시크한 나선형 밴드 디자인의 비제르윈 다이아몬드 링 8백만원대 **불가리**, 53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가 링에 내려앉은 듯 심세한 세팅이 매력적인 베이 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링 8백만원대 **사텔 화인 주얼리**.



(왼쪽부터) 기존에 브레이슬릿과 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꽃' 모티브의 컬렉션을 펜던트로 재해석한 저스트 앵글루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모티브 뒷면에 인그레프팅할 수 있다. 7백90만원대 **카르파에**, 카멜리아 모티브와 오벌 컷 다이아몬드가 아우러지는 까멜리아 프라세유 네크리스 1천2백만원대 **사텔 화인 주얼리**, 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함께 카보숑 세팅한 터퀴이즈 원석 펜던트가 조화를 이루는 포제션 네크리스 2백만원대 **파이에**, 에디터 **베이지**, **권유진**, **이지연**

타사기 02-3461-5558 **불가리** 02-2056-0170 **티파니** 02-547-9488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사텔 화인 주얼리** 02-3442-0962 **카르파에** 1566-7277  
**오메가** 02-511-5797 **파이에** 02-540-2297

# happy Moments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스와로브스키의 기프트 아이템을 제안한다. 봄을 상징하는 꽃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의 '라티샤(Latisha)' 주얼리 컬렉션과 함께 크리스털 광채를 뽐어내는 스텔라(Stella) 워치가 그것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반짝임을 안겨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atisha Collection**  
블랙 크리스털로 총총히 장식한 플라워 모티브와 영롱한 진주가 어우러진 리티샤 아이링 16만5천원, 블랙과 화이트 크리스털을 꽃 모티브 펜던트 양면에 정교하게 수놓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리티샤 펜던트 네크리스 18만9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이지연**



**Stella Watch**  
반짝이는 크리스탈 파베 세팅의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타원형 케이스에 브랜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러그 디테일이 궁극의 우아함을 선사한다. 대일미 록은 물론 특별한 자리를 위한 포인트 액세서리로도 손색없는 스텔라 워치 46만원 **스와로브스키**.

sponsored by SWAROVSKI

# High Noon

화려한 프린트와 유니크한 디테일로  
눈길을 사로잡는 조여름의 스테일룩.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플라워 프린트 언벨런스  
드레스 1백38만원 스포트미스,  
블루 칼라 드레스 이어링 38만원  
타니 by 마네키니, 화이트 오픈토  
부티 힐 1백만원대 루이비통.

실버 스웨그 장식 크롭트 재킷  
가격 미정 발렌티노, 옐로 비즈 데테일  
보디수트, 시스루 플리츠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레더링 스트랩 힐 1백15만원 지미후.



옐로 하운즈투스 트윈드,  
자켓과 유니, 스카트, PVC 소재  
롱부츠, 블랙 미니 백일두  
가죽 미장 사넬, 주얼 장식 드림  
이어링 2만원 타니 by 미네라니.



코미스 프린트의 롱 코트 4백만원대  
프라다, 아너로 착용한 슬리브리스  
원피스, 레아이드한 슬림 원피스,  
골드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실비토레 페라구모.





패턴 슬리브리스 롱 드레스 1백38만원,  
레터링 보디수트 가격 미정, 블랙 맨조 78만원,  
블랙 펄프스 93만원 모두 바버리, 오렌지 컬러  
슬다백 2천18만원 제이원퍼, 주얼 장식  
드롭 이어링 23만원 타니 by 마네키니.



원 숄더 드레스, 핑크 컬러  
스트랩 힐, 볼드한  
주얼 장식 이어커브 모두  
가령 미정 드레스 박 노튼.

패턴 더블 재킷과 팬츠,  
화이트 셔츠 모두 가격 미정  
엘프리오 아르마니,  
블랙 스트랩 힐 1백30만원대  
로저 비비에.



헤어 제니  
메이크업 송현정  
모델 타나니  
어시스턴트 문진호, 김현민  
스타일리스트 차현석

프라다 02-3218-5331  
살비도레 데카기모 02-3430-7854  
드리스 반 노트 02-3479-1796  
샤넬 080-200-2700  
타니 by 마베타니 02-6905-3583  
스토레마스 02-3467-8326  
엘프리오 아르마니 02-540-1115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버비에 080-700-8900  
제이마렌더 02-463-4400  
발렌티노 02-2015-4653  
디올 02-3480-0104  
지미우 02-3443-9469  
루이 비통 02-3432-1854

# editor's Pick

감사의 말과 함께 전달하면 좋을,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추천하는 뷰티 기프트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린스 SOS 퓨어 리밸런싱 클레이 마스크 피지 조절 기능이 뛰어난 데다 촉촉한 클레이 마스크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유7는 알파인 윌로우 허브 추출물과 그린 클레이, 화이트 클레이 성분으로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를 낸다. 더 극적인 모공 수축 효과를 얻고 싶다면 천문로 마무리 세안하면 좋다. 75ml 5만2천원. 문의 080-543-9052. *by 에디터 배미진*

리프라피 스킨 케어 에센스-안-피우데이션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의 대명사인 리프라피에서 정교한 포몰라와 정결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한다. 유7는 쿠션 팩트를 출시했다. 공기층 차단하는 독창적인 시스텔로 한 번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분사해 용기에 남은 포몰라가 원 상태로 보존돼 항상 깨끗 차림 사용할 수 있다. 텍스처나 카바릭은 리프라피 제품인 만큼 고민이 필요 없다. 15ml x 2립피 포함 25만3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미진*

람플 압슬쉬 에-엘-라커 #515 버즈리치 에디터의 인생 립으로 등극한 제품으로, 틈트와 립글로스의 정교한 답답다. 가볍게 터치해도 입술에 걸려붙을 뉘는 틈트 효과와 빈틈없는 유라질 광택 효과가 마치 본연의 입술이 건강할 듯 촉촉하고 생기 있는 입술을 완성한다. 무엇보다 이런 효과가 풀을 마시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된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강렬한 파티 메이크업까지 연출할 수 있으나, 울퉁 필수 아이템인건 분명하다. 8ml 4만2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X 에르뎀 스트레인지 콜라워 칼렉션 립스틱 문 오가드 풍부한 색감과 패턴,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패션 브랜드인 에르뎀(ERDEM)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과감한 컬러를 사용하는 에르뎀의 DNA를 반영해 옐로 색도, 퍼플과 블랙 립스틱 등 눈길을 사로잡는 메이크업 제품이 가득하다. 그중 시어 라이트 핑크 칼렉션 문 오가드 립스틱은 꽃잎이 입술을 물들인 듯 사랑스러운 핑크 톤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3.4g 3만7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권유진*

클로에 노디드 오 드 파퓸 노디드라는 이름처럼 자유로운 정신과 변하지 않는 자연의 우아함을 표현한 여성 향수. 부드럽고 따스한 향이 매력적이며, 플로랄 시프레, 오르모스, 프라자미 등이 조화를 이뤄 첫 향은 특 싹트듯하지만 서서히 개곳하고 포근하게 변하는 잔향이 매력적이다. 클로에의 드류 바클을 연상시키는 보들 또한 매력 포인트. 50ml 12만9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스 코롱 오 드 시트론 누와 오 드 코롱 블랙 레몬이라는 유니크한 소재로 조향사 크리스틴 나이젤이 자선인의 감수성을 살짝하게 끌어냈다. 에르메스의 높은 브랜드 가치가 화려한 가격, 충분한 사용할 수 있는 용량까지, 선물을 위한 향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우리 향과 스킨 케어를 위해 꼭 갖춰야 할 필수품이다. 100ml 15만2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배미진*

딤티크 오 데 생 헨드 앤 바디 클렌징 젤 욕실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물에 닿았을 때 풍부한 거품으로 뛰어난 세정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시야바타를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주며, 꽃과 잎, 열매, 그리고 줄기까지, 오렌지나무 한 그루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오 데 생'의 향이 샤워 후 욕실 전체를 가득 채우기 때문! 200ml 5만9천원. 문의 02-6002-3230. *by 에디터 이지연*

디올 다울스킨 마베일 누드 글로우 003 캔디 리브 디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미네랄 누드 글로우 제품. 미세한 성분을 함유해 칙칙한 피부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해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 사용하면 좋다. 달콤한 캔디 컬러의 부드러운 질감이 피부에 보습보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은은한 광채까지 선사한다. 10g 7만2천원. 문의 080-342-9500. *by 어시스턴트 에디터 김은서*

프레쉬 헤스페리데스 그라피프 프루트 모이스처라이징 핸드크림 잠깐의 외출에도 손이 금세 짝딱딱해 지주 닦고 하는데, 이 핸드크림은 촉촉한 보습력뿐 아니라 손등에 바르는 즉시 자몽 특유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퍼져 기분이 상쾌해진다. 핸드백 속에 쉽게 들어가는 사이즈와 휴대하기 편리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물이기 적절하다. 30ml 2만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이지연*

설화수 살린크림 배우 송혜교의 광고 효과 덕분에 출시하자마자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설화수의 신제품 크림. 향신료 효과가 뛰어난 국내산 녹차와 꽃봉오리 성분을 원료로 해 더욱 믿을 만하다. 데이 크림과 나이트 크림으로 모두 적당하다. 50ml 15만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미진*

비야리도 우즈 캔들 아다사든 웅장한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 스페인의 자연경관을 담은 촛. 이 촛을 태우면 차분한 달콤하고 강렬한 라벤더의 향이 퍼져서 자신과 페탈과 투스카니 가족 등 풍부하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미들 노트로 서서히 아진다. 향물이 필요할 때 추천하고 싶은 향으로, 시트러스 블랙 베이스까지 마음에 속는다. 240g 9만6천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레 배주 엘시 글로우 내추럴 아이샤드 팔레트 골드 팔이 들어간 옐은 브라운 뷰티 질은 초콜릿 색상까지, 매트한 질감과 새틴 텍스처 등 다양한 컬러와 텍스처로 구성해 하나의 팔레트만으로도 데일리와의 에프터 룩을 오가는 다양한 연출을 즐길 수 있다. 4.5g 9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이지연*

클레르보 보메 사-코티프 퍼퓸 쥘 크림은 하이엔드 라인이자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사-코티프 라인의 쥘 10주년 기념으로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보다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크리미한 쥘 타입의 크림으로, 끈적임이 없고 물기가 느껴질 정도로 촉촉하게 스며드는 텍스처와 무엇보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장미 향이 특징이다. 100ml 34만9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권유진*



# stylish Comfort

아무리 보기에 아름다운 신발도 신었을 때 불편하면 무용지물이다. 여기 발이 편안할 때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란 브랜드 철학을 이어가는 인체 공학적 패션 슈즈 브랜드 핏플랩을 소개한다. 본격적인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 5월, 스타일을 살려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까지 안겨주는 핏플랩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H BAR COLLECTION

컬렉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H 바를 형상화하는 통가죽 어퍼가 포인트로, 슬라이드 슬리퍼와 샌들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베이직한 블랙, 브라운 레더 디자인부터, 프렌치 장식 또는 팬칭 디테일을 더한, 포인트가 돋보이는 디자인까지 다채롭게 제작했다. 왼쪽 하단 스페셜 쿠폰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슬라이드 슬리퍼 10만원대, 샌들 20만원대 모두 핏플랩.



##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 핏플랩

핏플랩(Fitflap)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집 앞 공원은 물론, 워터파크, 백화점 등 활동 반경 몇 미터 내에서 핏플랩을 신은 사람을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들이 신은 디자인을 보면 그 신발이 '핏플랩'이란 사실을 단번에 알아챌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번 신으면 헤어날 수 없는 편안한 중독성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마니아층을 쌓아온 핏플랩은 마시아 길고어(Marcia Kilgore)와 최고 생체 역학 전문가들에 의해 탄생한 글로벌 컴포트 슈즈 브랜드로, 2006년 처음으로 정밀 인체 공학을 도입해 야외 활동에 적합한 셔미 샌들을 만들어냈다. 그 당시 함께 디자인 작업을 한 런던 사우스 뱅크(London South Bank) 대학교의 데이브 쿡 박사와 대런 제임스 박사 등 생체 역학 전문가들과 정한 규칙과 그들의 조언을 반영한, 3중 밀도의 Microwobbleboard(마이크로워블보드) 미드솔을 적용한 최초의 핏플랩 샌들을 탄생시켰다. 이 마이크로워블보드 미드솔이 우리가 말하는 핏플랩만의 편안한 착용감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브랜드가 가장 주력하는 최상의 생체 역학을 구현한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신발이라 불리는 핏플랩은 브랜드의 독창적인 마이크로워블보드 미드솔로 만든 첫 번째 샌들인 웨스턴의 성공에 힘입어, 혼잡한 이후 지금까지 핏플랩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총 63개국에 진출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드솔을 개발하고, 인나 수이 등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이어왔으며, 미드솔을 향한 집념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패션과 기능성을 접목시킨, 자체 설계한 인체 공학적 미드솔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즐기는 여성을 위해 가장 편안한 신발을 만든다는 핏플랩의 마시아 길고어는 슈즈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미드솔을 디자인했다. 그 결과, 각각적인 스타일은 물론, 재질, 대당량, 기능성이라는 세 가

지 원칙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한 미드솔 기술을 적용, 뛰어난 쿠션감과 최상의 편안함을 자랑하는 신발을 완성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이 마이크로워블보드 미드솔이다. 사람들은 대개 걸을 때 발뒤꿈치까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엄지발가락 위주로 발 앞쪽에 가장 높은 압력을 느껴 모든 충격을 앞쪽에서 흡수하고, 그 결과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핏플랩의 상징적인 마이크로워블보드의 유연한 미드솔은 착지 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분산시켜 발 전체에 편안함을 선사하도록 고안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신발 앞축, 즉 발가락 부분에 적용한 중간 밀도의 쿠셔닝은 보행 시 바닥을 밀어내는 것을 도우며, 해부학에 기초한 윤곽의 밑창이 발 밑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것. 또 미드솔 중간 부분에 폭신한 쿠셔닝을 넣어, 발을 피지게 해서 편안함을 극대화했으며, 발뒤꿈치 부분에는 단단한 쿠셔닝을 사용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세 단계(3중) 부위별 맞춤 완충 기능으로 온종일 신어도 편안한 마이크로워블보드 미드솔은 핏플랩의 모든 클래식 스타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좀 더 슬림한 멋에 신는 슬림 스타일의 슈즈나 샌들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2중) 부위별 맞춤 완충 기능이 가능한 '슈퍼컴프(Supercomff)' 미드솔을 장착했다. 또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위한 에슬레져 스타일의 제품에는 기존 미드솔보다 한층 유연하고 가벼운 쿠셔닝, '아나토미쿠시(Anatomicush)' 미드솔을 적용했다. 압축이 살짝 들린 디자인의 이 미드솔은 마모에 강한 미끄럼 방지용 고무 돌기를 발바닥 앞과 뒷부분에 배치했으며, 다른 미드솔과 달리 플렉스 라인(Flex line)이 바닥을 가로질러 파여 발을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최적의 레저화로 즐길 수 있다. 또 핏플랩의 오리지널 고무 플러플름에는 인체 공학적 형태의 초경량 쿠셔닝 '이이쿠션(Quishion)' 밑창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번 2018 봄여름 시즌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델타(Delta)와 H 바(H Bar) 컬렉션에는 2겹의 층으로 구성된 '듀오컴프(Duocomff)' 미드솔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고무 분산함으로써 최적의 착용감을 부여한다. 발을 위한 인체 공학적 편안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가까운 핏플랩 매장에 방문하여 모든 걸 직접 경험해 보길. 문의 1544-5114 에디터 이지연

© sponsored by Fitflap



## DELTA COLLECTION

이번 2018 봄, 여름 시즌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델타 컬렉션은 투 밴드 어퍼 스타일의 샌들과 슬리퍼로 구성되며, 기본 브라운, 핑크 레더판이나 글리터리한 컬러 포인트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 밴드로 드러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하반기에서 선보이는 네 가지 컬러는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이나 절대 놓치지 말 것. 왼쪽 하단 스페셜 이벤트 쿠폰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슬라이드 슬리퍼 10만원대, 샌들 20만원대 모두 핏플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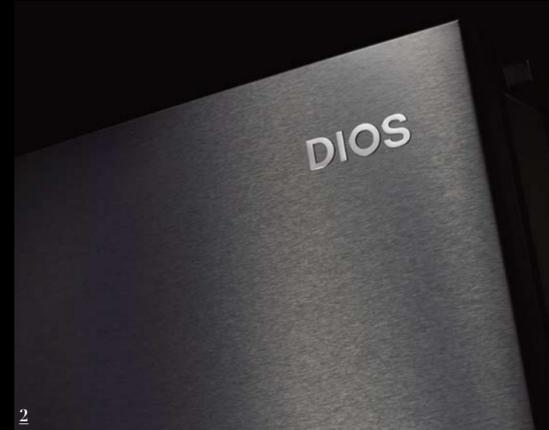
## SPECIAL EVENT COUPON

### (스타일 조선일보)와 핏플랩이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전국 핏플랩 매장 및 라운지매장 방문하시면 H 바, 델타 라인에 한해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기간 2018년 5월 23(수)~31(목) ◆ 문의 1544-5114
- ◆ 중점 매장 롯데백화점 본점 핏플랩 매장, 현대백화점 본점 - 판교점 - 대구점 핏플랩 매장, 갤러리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 센텀점 라운지매장 외 전국 핏플랩 입점 매장에서 사용 가능.
- ※ 중복 할인 적용 불가





2

1 흑진주를 담은 투명 패턴 덕분에 흔들리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2 반짝이는 맨해튼 야경의 진짜 주인공은 아들이 감아침수족 그윽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밤하늘이다. 그 깊은 아름다움을 담은 LG DIOS 얼음정수기냉장고 맨해튼 미드나잇. 3 824L 용량의 냉장고에 착수형 얼음 정수기를 결합한 용·복합 냉장고라 효율적이다. 4 얼음 정수기 상단의 터치 패널에서 120ml, 500ml, 1L 중 원하는 용량을 선택한 후 레버를 누르면 용량만큼 출수되는 정량 급수 기능도 적용했다.



5

맨해튼의 밤하늘을  
나만의 특별한 주방에

# manhattan Midnight

뉴욕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맨해튼의 야경을 심플하고 럭셔리하게 풀어낸 새로운 맨해튼 미드나잇 블랙 컬러. 브루클린에서 바라본 뉴욕의 화려한 불빛과 깊은 밤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련된 블랙 컬러의 냉장고, 바로 LG DIOS 얼음정수기냉장고 맨해튼 미드나잇이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백색 가전을 넘어 블랙 컬러를 내 주방에,  
LG DIOS 얼음정수기냉장고 맨해튼 미드나잇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시대, 친편익률적인 백색 가전보다 특별한 멋  
지를 원하는 이라면 LG DIOS의 완전히 새로운 제안인 매트 블랙 컬러는 어떨까. 주방 가전  
에서 가장 프리미엄한 소재로 다루는 리얼 스테인리스가 마치 사진 작품 속 어두운 밤하늘 처  
럼 깊고 온은하게 자태를 드러낸다.  
LG DIOS 얼음정수기냉장고 맨해튼 미드나잇의 특이적인 차이점은 시크하고 도시적인 라  
이프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요소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것이다. 대형 가전인 냉장고의 전  
면을 매트 블랙으로 마감한 것은 과감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만일 지금 화이트를 베이스로 한  
주방 가전을 갖추고 있다면, 이 냉장고는 공간과 대비를 이루며 확실한 주인공이 되어줄 것  
이고, 어두운 계열의 주방을 꿈꾼다면 더 이상의 선택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스타일링 아이  
템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재질감과 고급스러운 마감은 적용한 블랙 가전은 드물기에 멋진  
신혼을 계획하고 있는 세련된 커플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취향이 드러나는 나만의 주방을 위한 매트 블랙 오브제  
매년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컬러가 등장하고, 화려한 컬러들이 SNS를 수놓지만, 가장 클  
래식한 컬러인 블랙의 매력이 절대적인 이유는 그 무엇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택 없이 우아한 오 را를 지닌 매트 블랙은 이미 패션과 하이엔  
드 위치에서 검증된, 진정한 프리미엄 컬러다. 잔잔한 반짝임만 느낄 수 있는 샤벨의 트윈드  
원피스와 리처드 밀 같은 초고가 시계에서 카본 소재로 구현하는 매트 블랙의 깊이는 오랜  
시간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LG DIOS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특별한 블랙  
컬러 역시 매우 감각적인 영감에서 비롯되었다. 맨해튼 야경을 깊은 블랙 컬러에 담은 맨  
해튼 미드나잇 패턴을 적용해 완전히 새로운 톤을 창조했다. 맨해튼 미드나잇 블랙 컬러의 실  
물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절로 제품의 표면을 어루만지게 된다. 번쩍이지 않는 매트한 텍스  
처가 깊은 느낌을 주고, 마치 하이엔드 위치의 피니싱에서 느껴볼 법한 정교한 기법으로 마  
감되었다. 냉장고 전면에 블랙 컬러를 도입했다는 특별함과 어떤 곳이든 프리미엄급 공간으  
로 변신시키는 마력을 모두 갖추었다. 맨해튼 야경처럼 깊고 고요한 밤하늘을 표현해 주방

을 더 품격 있어 보이게 만드는 특별한 냉장고인 것. 이 제품을 주방에 배치하는 순간, 그곳  
이 바로 나만의 힐링 플레이스이자, 심혈을 기울인 아지트가 된다.

**하이엔드 냉장고 본연의 기능을 더욱 높은 시크한 가전의 똑똑한 선택지**  
디자인에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기능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  
화다. 이처럼 두 가지 매력을 모두 지닌 것이 맨해튼 미드나잇 패턴을 적용한 LG DIOS 얼  
음정수기냉장고. 시선을 사로잡는 세련한 기능은 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얼음 정수 기능이다. 미세 먼지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까다로운 소비자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3단계 안심 정수 필터 시스템을  
통해 물속의 중금속, 잔류 염소, 냄새 등을 제거해 깨끗한 물과 얼음을 바로 먹을 수 있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상냉장, 하냉동 타입의 매직 스페이스 시스템 덕분에 주방 공간을 더욱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편의성까지 높였다. 문의 1544-7777 에디터 배미진

# SHOWROOM

FASHION



**파비아나 필리피** **갤러리아 명품관 EAST 매장 리뉴얼 오픈 이벤트** 파비아나 필리피는 갤러리아 명품관 EAST에서 매장 리뉴얼 오픈 이벤트를 진행했다. 브랜드의 CEO 마리오 필리피 코스타와 우아한 컬렉션 룩을 착용한 감남주, 한혜진, 김효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리뉴얼된 공간 속, 여행하는 여자를 콘셉트로 더 웨어 러블리한 디자인과 모던해진 룩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2-6905-3626

**보테가 베네타 벨트 백** 보테가 베네타는 스타일리시한 무드의 '벨트 백'을 선보였다. VN과 인트레치아토 체커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VN 모델은 보다 전체가 인트레치아토 워크맨십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일론 벨트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인트레치아토 체커 버전은 견고한 카프 구조로 구성된 보디와 인트레치아토 워크맨십으로 표현된 체크무늬 벨트가 특징이다. 허프 색이나 크로스 보디 백으로 착용할 수 있다. 올봄,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벨트 백에 주목해보자. 문의 02-3438-7882

**에르메네집도 제나 팔레 테스타 지갑 컬렉션** 에르메네집도 제나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센스 있는 선물로 팔레 테스타 지갑 컬렉션을 제안한다. 가족을 세심하게 케어해 실처럼 만든 팔레 테스타 패브릭으로 만든 이번 컬렉션은 가족 고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가벼운 무게, 자연스러운 광택을 자랑한다. 가족이지만 패브릭과 같은 유연성이 강점. 특히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트리플 스트리치 스트라이프 문양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품격을 선사한다. 반지갑, 가로형 카드 케이스, 세로형 지퍼 카드 케이스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6297

**까날리 시너처 프린트 스니커즈 컬렉션** 까날리는 비즈니스 혹은 휴가로 끊임없이 여행하는 남성을 위한 '시너처 프린트 스니커즈 컬렉션'을 제안한다. 화이트 편칭 베이스에 네이비, 옐로, 버건디 등 3가지 컬러의 밴드 디테일이 포인트. 100%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뛰어난 착용감이 장점이다. 문의 02-3467-8603

**에르메스 에르메시스터** 에르메스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간 매종 에르메스 도스파르크에서 패션 액세서리의 매력을 담은 특별한 놀이 공간 '에르메시스터'를 진행한다. 노마드, 미니 독, 사르니에, 에나멜 액세서리로 가득한 각 층에서 나 자신의 감정을 확인해보는 이모션 힐, 디재로운 메도르 인피니 액세서리와 함께 라이브 쿠키 존, 핸드 포드 부스 등을 경험해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길. 문의 02-544-7722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디오네 소프트 백**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는 캐주얼한 데일리 백으로 제안하는 '디오네 소프트 백'을 선보인다. 무광 악어가죽을 사용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세이프가 특징. 2가지 소재의 스트랩이 포함되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으며 깊이 있는 카키와 브라운, 2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516-9517

**키튼 시라 백** 키튼은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는 '시라 백'을 선보인다. 어느 룩이나 잘 어울리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이 특징. 특히 안쪽에 달린 키튼 포세트를 교체할 수 있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데일리 백으로 제격이다. 문의 02-3449-5394

**토즈 사빙 캡슐 컬렉션** 토즈는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빙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곡선 로고를 담은 고미노 슈즈와 실용적인 디테일을 더한 남성 고미노 백에는 사빙 액티비티에서 느껴지는 자유분방한 무드와 강렬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담았다.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로 선보이는 여성용 웨이브 백은 다양한 스타일링에 매치 가능하다. 문의 02-3438-6008

**핏플립 델타 백 스트랩** 핏플립은 세련된 컬러 배색이 돋보이는 '델타 백 스트랩'을 선보였다. 부드러운 소가죽과 반짝이는 미러 메탈릭 가죽의 조합으로 드레시하면서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해준다. 접촉면에 따라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해주는 인체 공학적 기술을 적용해 편

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플랫폼 굽으로 슬림한 디테일을 돋보이게 해준다. 문의 02-3467-8784

**0914 소프트 바케타 백** 0914는 원스텝과 보헤미안 감성의 이탈리아인 천연 스톤 장식이 특징인 '소프트 바케타 백'을 선보인다. 카프 스카를 사용해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은 사철과 슬더 2가지 버전과 들판의 푸르름을 담은 3가지 컬러로 출시했다. 문의 02-2056-0914

**몬블랑 스타 레거시 니콜라스 워섹 크로노그래프** 몬블랑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스타 레거시 니콜라스 워섹 크로노그래프'를 공개했다. 천재적인 위치 메이커이자 크로노그래프의 창시자 '니콜라스 워섹'을 기리기 위해 탄생했으며, 미네르바의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조약돌같이 둥근 라운드 케이스가 특징. 실버 화이트 컬러 디테일과 조화를 이루는 기묘해 패턴, 가독성이 뛰어난 아라비아 숫자, 세련된 블루 컬러의 사침과 분침이 인상적이다. 문의 1670-4810

## JEWEL & WATCH



**스와로브스키 리타샤 컬렉션** 스와로브스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리타샤 컬렉션'을 출시한다. 플라워에서 영감을 디자인하며 봄에 착용하기 좋은 우아한 아이템으로 선보인다. 블랙과 화이트 크리스탈을 팬던트 양면에 정교하게 수놓았으며, 팬던트와 초커, 롱 네크리스 등 다양한 컬렉션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6108



몬블랑

**브레게 마린 5517** 브레게는 모던함과 역동성을 기미해 미학적 코드를 적용한 마린 컬렉션의 새로운 얼굴 '마린 5517'을 공개했다.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티타늄 등 다양한 케이스 소재로 제작했으며, 시계의 리그, 인덱스, 초침 등에 마린 컬렉션을 연상시키는 디테일을 적용했다. 문의 02-6905-3571

**해밀턴 카키 엑스-원드 GMT** 해밀턴은 남성의 품격을 높여줄 카키 엑스-원드 GMT를 제안한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항공 시계 역사와 현대적인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제품으로, 편각 계산기를 장착한 크로노그래프에 24시간 GMT 기능이 추가된 버전으로 선보인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오렌지 컬러로 초침과 카운터에 포인트를 주었으며, 퀴츠 무브먼트를 탑재해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스포티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의 3가지 스트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7-8361

**티파니 Tiffany T스퀘어 브레이슬릿** 티파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 Tiffany T스퀘어 브레이슬릿을 제안한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T 로고와 에나멜 넘치는 뉴욕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으로, 믹스 매치와 레이아웃을 통해 관능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 T 컬렉션에 주목해보자. 문의 02-547-9488

**불가리 옥토파니셔 두르비용 오토매틱** 불가리



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2018 비제월드에서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예술성을 조합해 극도로 얇은 두께로 완성한 '옥토파니셔 두르비용 오토매틱'을 선보였다. 3.95mm의 두께로 시계 산업에서 네 번째로 얇은 달상했으며, 오프 올로제리 영역을 다시 정의 내렸다. 문의 02-2056-0170

**타사키 라벨로 컬렉션** 타사키는 화사한 봄을 위한 특별한 기프트로 라벨로 컬렉션을 제안한다. 유려하면서도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곡선형 밴드는 착용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의 폭과 두께로 제작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착용했을 때도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세련된 품격을 선사한다. 브랜드의 특허 기술로 탄생한 은은한 빛깔 컬러의 SAKURAGOLD™와 브랜드의 독자적인 경화 처리로 내뻥 강도를 높인 플래티넘 소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10-1854

**피아제 포제션 워치 & 로즈 링** 피아제는 어버이날을 맞아 우아함이 느껴지는 '포제션 워치'와 '로즈 링'을 제안한다. 화려한 에나멜 포제션 링에서 영감을 얻은 포제션 워치는 반짝이는 골드와 다이아몬드, 유려한 곡선의 스틸로 제작했으며 강렬한 컬러가 돋보이는 스톤 장식 다이얼과 경쾌한 컬러 스트랩의 조화가 돋보인다. 피아제 로즈 링은 진귀한 골드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고, 오픈워크 기법으로 완성한 장미 꽃잎이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540-2297

BEAUTY



**순식물성 이영에 화장품 트리트먼트 크림** 순식물성 이영에 화장품은 임신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하고 촉촉한 '악산성' 트리트먼트 크림을 출시한다. 탄력 강화, 진정, 보습, 인티몰루션 효능의 보디 크림으로, 급격한 체형 변화를 겪는 예비맘의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다. 출산 후에도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의 1899-6838

**발렌티노 도나 로사 베르데** 발렌티노는 프레시하고 투명하고 부드러운 '도나 로사 베르데'를 선보인다. S/S 쿠티르 패션쇼에 등장한 페일 그린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 이탈리아 푸른 지중해의 시냇물을 싱그러운 그린 플로럴 향에 담았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라스터 디테일을 적용한 보틀이 돋보인다. 문의 02-3443-1805



**LG전자 LG DIOS 얼음정수기** LG전자는 맨해튼의 아강처럼 깊고 고요한 밤하늘을 표현한 '맨해튼 미드' 및 패턴을 담은 LG DIOS 얼음정수기를 선보였다. 얼음 정수기를 결합한 용·복합 제품으로, 효율적인 주방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3단계 계엄 정수 필터, 헬스 케어 매너 서서스 등 차별화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544-7777

**정관장 천복정** 정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선물로 녹용을 함유한 '천복정'을 추천한다. 오랜 시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귀한 녹용의 선물을 담은 제품으로, 8단계의 엄격한 검증 과정과 연구진 2백여 명의 노력 끝에 탄생했다. 환절기나 급격한 체형 저하로 기력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이다. 문의 02-2189-3900

LIFESTYLE